

언론인은 ‘선비’ 이어야 한다

언론인을 선비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단연코 ‘예스’라고 답변하겠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의 뜻을 살펴 보면 국어대 사전에 선비를 가리켜 1)학식은 있되 벼슬을 하지않은 사람 2)학문을 닦은 사람의 예스런 말 3)어질고 순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언론인이야 말로 학식이 있되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 즉 선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찍이 한학을 한 선배들이 일제강점기에 언론에 투신하여 글을 통해 망국의 설움을 비분강개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그후 국권을 회복한 후에는 이 나라 유수의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모인 곳이 언론계임은 자타가 공인할 진데 언론인이야말로 이 나라의 선비-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언론인을 선비로 부르는 풍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언론인 자신들이 자학적으로 부르는 ‘쟁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언론인 자신들마저 내가 선비라는 사실에 당황하거나 슬며시 도피하려는 습성을 감추려 하지않고 있다. 왜 언론인들은 자신이 선비라는 사실로부터 도피하려 하는가. 학식이 없어서인가. 벼슬을 하고 싶어서인가.

국어대사전 선비란의 2항에는 선비란 학문을 닦은 사람을 예우하는 말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요즘의 이른바 학자, 교수등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이 가운데는 상아탑속에 파묻혀 학문에 전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참여라는 기치아래 이 사안 저 사안에 의견을 내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분들을 통틀어 선비라고 하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어지고 말았다. 요즈음 잣대로 보면 이들 교수들에 대해선 선비라고 불러도 괜찮지만 언론인들을 선비라고 부르면 무언가 어색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맞는 얘기인가.

교수들의 현실참여가 보편화 되는 것은 이들의 전문지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인들은 전문지식이 결여돼 있는가. 왕왕 나타나는 사실로서 학자들의

발언이 현실문제에 집중되면 될수록 공허한 이론에 그치기 쉬운 반면 언론인들의 분석은 날카로워진다. 예산, 지방자치, 치안, 실물경제, 외교, 국방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고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사항일수록 언론인들은 현장의 경험과 지식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新年辭



趙昌化

· 대한언론인회 회장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조선왕조 5백년을 지탱해온 버팀목으로 흔히 언론을 들고있다.오랫동안 공부한 선비들은 벼슬을 탐하지 않고 언론(상소)을 통해 시국을 논했고 민생을 건 의했다. 왕은 이를 무엇보다 중히 여겼고 언론의 소통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21세

로 언론인들이 아니겠는가. 21세기 이 나라의 선비들은 바로 언론인들이다.

언론인들은 모름지기 자신이 오늘의 선비임을 자각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기의 전문지식을 연마하고 당당하고 성실한 참여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오늘의 선비로서 살아 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몇 가지의 규범이 요청된다. 나는 여기서 언론인회 회원이며 전 한림대 총장을 역임한 이상우 박사가 주장하는 선비의 5개 덕목을 강조 하고 싶다. 自尊, 修己, 爲公, 順理, 博愛가 바로 그것이다.

언론인들은 한없는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언론인에게 자존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다. 자존심을 상실했을때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다. 자존심이 훼손됐을때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 것은 언론인들의 정당방위다.(自尊)

언론인들의 이러한 자존심은 끊임 없는 자기연마에서만 가능하다. 21세기의 글로벌 경쟁

에서 살아 남는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도 자기개발과 전문지식의 흡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修己)

언론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나를 떠나야한다. 그리고 손톱만한 국토위에서 7천만이 생존할 수있는 민족공동체의 미래에 매달려야 한다.(爲公)

그리고 이러한 언론인의 지향은 순리에 따라야한다. 대한민국의 존립전제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존중이 그것이며 좌파적 혁신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상식과 윤전에서 이탈하는 것은 언론인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順理)

그러나 이러한 모든 덕목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언론인의 기본 사명은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못 사는 사람, 혜택을 못받는 사람, 질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설 수는 없다. 차라리 그들은 언론인들이 감시 해야 할 대상이다.(博愛)

언론인 아니 오늘의 선비들은 앞에서 열거한 덕목을 완성은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자세를 그 방향으로 잡을때 비로소 언론인들은 선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

自尊, 修己, 爲公, 順理, 博愛 덕목 닦아 私心없이 政策제시-평가 言路 지켜야

하지만 학자들은 이론에 맴돌기 일쑤다. 언론인들은 이론에 약할 수 있지만 공론에 빠지는 우는 범하지 않는다. 현실참여에 필요한 진정한 전문지식은

기 다원화된 사회속에서 언론의 틀은 각종 미디어의 메커니즘일 것이며 이를 통해 사심 없이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의 운영을 평가 하는 사람들이 바

2010년 정기총회 공고

대한언론인회 2010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일시 : 2010년 1월 26일 오후 2시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안 건 : 1. 2009년 결산 보고
2. 2010년 예산안 의결
3. 2010년 사업계획
4. 정관개정
5. 17대 회장 선출
6. 17대 임원 선임

2010년 1월 1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회장 조창화

백호(白虎)의 기상으로 희망을

新年詩



김후란

- 본회 회우
- 시인
-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

멀리 천리를 내다보는 첫걸음 이고저
은빛 눈부신 백호의 기상으로
형형히 불 밝힌 눈 세상을 지켜 보면서
정의로운 길 열어 가고저

돌이켜 보면 올해는 상처 깊은 해
100년 전 가슴 찢기던 모멸의 경술국치
우리의 빛부신 5천년 역사 먹물로 덮였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탕크로 밀어 불바다 이룬
60년 전 6·25전쟁 민족의 불행 겪었다
빛줄기 때리고 눈 덮인 강산에
쓰러지고 흩어진 가족들의 눈물

그러나 짙은 어둠 끝에 새벽이 오듯이
절망 이겨낸 험난의 길 끝에
아, 대한민국 세계 속에 우뚝 일어섰으니
시련의 역사 거둬 교훈으로 보듬어
상서로운 백호의 강인함으로
우리 희망의 길 다져가자

새해의 능름한 첫걸음이
십년 백년 천년으로 이어지도록.

새해揮毫

‘言論一路’



南德 韓碩奉



2010 새해 회호를 쓴 南德 韓碩奉 선생(사진)은 대한민국 서예대전(국전)에 다수 입선과 함께 한국 미술대전(서예) 대상을 수상한 서예가다. 南德은 대한언론인회 고회 회우 기념 접시의 회호 ‘言論一路’를 쓰기도 했다. 南德은 서울특별시장상, 교육 공로상, 복지부장관상, 한국예술공로상을 수상 하였으며 현재 ‘南德 서예원’ 원장으로 후학을 기르고 있다. 약력은 다음과 같다.

- 고려대학교 교육원수로
- 대한민국서예대전(국전)다수입선
- 동양미술대전(서예)우수상
- 한국미술대전(서예)대상
- 대한민국서예공모대전 초대작가
- 한국서예대전연합회 운영위원
- 대한민국서예공모대전 심사위원
- 한국예술문화협회 부회장
- 서울종합예술제(서예)심사위원
- 한국서예진흥협회 교육원 강사
- 한중 한일 초대작가 교류전
- 서울노인예술대학 서예교과 강사
- 전국서예백일장 심사위원
- 한국미술대전운영위원회
- 일본 오사카서가진흥회 초청강사
- 한국미술 100인 초대전
- 서울시립종합복지관 강사
- 한국미술제전 심사위원장
- 남덕서예원 원장

대한언론인회 17대 회장 홍원기 회우 무투표 당선



홍원기 회우

제17대 대한언론인회 회장 후보 마감 결과 홍원기 부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자가 됐다. 홍 부회장은 총회에서 최종 당선자로 결정될 예정이다.

12월 11일 오후 5시에 마감된 17대 회장 입후보 등록에는 홍원기 부회장 1명만 등록해 단일후보가 됐다. 따라서 본회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 3장 표결 제6조(단일후보) 단일후보의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17대 회장은 무투표 당선자가 됐다.

그러나 홍원기 후보는 “정관 제 13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에 따라 2010년 1월 26일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7대 회장의 임기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서강화·조용중 회우 발전기금 기탁

12월 22일 외병중인 서강화 회우가 자신의 맘며느리 권숙희씨의 효부상 수상에 감사하며 발전기금 1백만원을 대한언론인회에 보내 왔다.

또 조용중 회우가 12월 22일 오후 본회 사무실에 들러 조창화 회장에게 발전기금 1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조용중 회우는 조창화 회장이 지난 2년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잘 이끌어 언론인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것이 무척 고마워 작은 뜻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제 17대 회장을 맡으며

홍원기

존경하는 회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영예로운 대한언론인회 제17대 회장선거에 단일후보로 밀어주신 회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우 여러분들의 뜻을 수렴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우리 대한언론인회의 설립목적은 친목과 후생복지, 언론문화 창달입니다.

저는 역대 회장단과 선배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훌륭한 업적을 기반으로 이 세가지 목적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선임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오신 ‘언론인장’은 운영방법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우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한언론인회보’의 편집방향은 현재의 기초를 유지하되 회우님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가장 절박한 기금문제는 집행부와 회우님들의 중지를 모아 재원을 확충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 언론은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신문산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은 시대의 흐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자유는 언론기업의 재정적 안정이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경영의 안정이 불안할 경우 언론자유는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언론인회는 원로 언론인들이 모인 단체인 만큼 작금의 언론상황을 직시하고 자유언론을 굳건히 하는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대한언론포럼’을 개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언론문화 창달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 포럼은 집행부가 구성되는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구상은 총회 석상에서 밝히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회우 여러분들의 태내에도 두루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ㄹ

2010년 새해에 거는 소망과 국가적 과제

‘난장판 政治’ 청산의 해로

2010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온 국민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새해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 마다 주고받는 덕담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이다.

한데 우리의 덕담은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 없지 않다. 설날 아침이면 아마도 국민의 90%이상은 약속이나 한 듯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한 마디로 통일된다.

이제는 이 판에 박은 덕담이 너무나 진부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한다. 세상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진화했는데 그런 시대상황에 걸맞는 인사법은 없을까.

올해의 4자성어는 ‘방기곡경’(旁岐曲逕)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전국 각 대학교수와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들이 선정한 이 사자성어는 큰 길(대로)을 놔두고 샅길과 굽은 길로만 간다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가 함축하는 뜻은 세종시 문제라든지, 4대강 사업 등 굽직한 현안들의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서로 대립을 일삼아 좁은 길과 굽은 길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음을 풍자한 말이다.

새해가 밝아오면 올해의 나라 운세는 또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전 자혁명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무슨 그런 운명론적이고 비과학적인 점괘에 신경을 쓰느냐고 냉소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새해에는 제발 좋은 일,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온 국민의 소박한 소망이다.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역술가들과 세계의 저명한 점성가들이 보는 2010년의 세계는 그리 밝지가 않으니 어찌랴.

2010년은 동양에서는 庚寅년으로 흰 호랑이띠의 해가 된다. 그런데 역사상 ‘庚’자가 든 해에는 나라가 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인년인 새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당한 시련이 예상된다는 것이 역술가들이 보는 점괘다.

아닌게 아니라 1950년 경인(庚寅)년

에는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났고, 꼭 100년전인 1910(庚戌)년에는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빼앗긴 경술국치(한일병합)가 있었던 해다. 또 1980(庚申)년에는 광주사태가 발생했으니 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



지용우

- 본보 편집고문
-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또 마야인들은 2012년 12월 21일에 종말이 닥친다고 날짜까지 못박았다.

그 예언을 줄거리로 만든 영화가 바로 최근에 상영된 영화 ‘2012’다.

물론 그런 비과학적인 예언에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

‘X판’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도 정치권이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 국회에서 여야 격돌로 싸움박질 한 것을 빼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한 것은 다섯 손가락이 남을 정도다.

노무현 정권시절 한나라당 사람들은 ‘코드정치’를 늘 비난했었다. 그런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지금은 집권당으로서의 오만과 밀어붙이기식의 독선으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형국이다.

그러면 제일야당인 민주당은 또 어떤가. 민주당 역시 제대로 된 야당의 위상

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이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란 정책제시나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타협과 협상을 거부하는 경직된 자세, 특하면 의사당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하는 것이 주특기이고 그래도 안 되면 거리시위로 나서는 것이 전부다.

이래 가지고 언필칭 ‘의회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야에 외면하는 것은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채 ‘정치부재’ ‘정치공동화’(空洞化) 상황을 초래한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불신을 넘어서 정치혐오증에 걸린 지 오래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새해에는 이 못하고 제구실을 못하는 정치관부터 뜯어고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여야격돌 의회 민주주의 실종 국민 혐오증 씻게 특단의 조치 필요



우포 늪 희망의 새해 日出 박응철(본회회우·전 KBS 해설위원)

할 수만도 없지 않겠는가.

특히 요즘 들어 부쩍 신경이 쓰이는 것은 2010년과 2012년 중에 밀어닥친다는 ‘지구종말론’이다. 노스트라다무스 이후의 족집게 예언가로 소문난 바바반가(마케도니아 태생)는 2010년에 3차대전이라는 일어난다고 예언했었다.

그의 말을 전적으로 묵살할 수 없는 것은 반가가 이미 2차세계대전의 발발을 비롯해 구소련의 붕괴와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까지도 예언해서 맞혔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강철새가 미국을 공격한다”고 예언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미처 상상도 못했던 9·11 테러를 뜻한 것이어서 놀라운 신통력을 증명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이 현대인들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2010년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방기곡경’(旁岐曲逕)의 함축이 뜻하듯이 새해에 국민 모두가 국익적 차원에서 바라는 소망중에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있다면 만성 고질병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은커녕 무거운 짐만 안겨주는 ‘저질 정치관’을 반드시 대폭 수습해 달라라는 것이 여론의 대세다.

어려운 내외환경과 각종 악재 속에서도 경제는 그런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데 정치관은 두었다 보아도 변함없는

한국의 일그러진 정치현실을 보면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저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떠오른다. 그중에서도 불멸의 명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다. 이 말을 오늘날 한국의 치졸한 정치관에 대입시키자면 ‘당리당략의 정치, 정치인 개인의 인기관리를 위한 정치’쯤으로 변작하는게 마땅하다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이여, 국민의 시선이 두렵거든 대오 각성하라. 

2010년 새해에 거는 소망과 국가적 과제

政治— 관료조직 효율적 장악 급하다

이명박 정권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임기 5년이라고 하나 임기말의 불가피한 뒤송송함을 고려하면 절반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일이 벌어지겠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YS 대통령 정부비서관) 官僚의 離反현상도 그 중에 하나이다. 물론 금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일 것이다.

케네디와 절친했고 印度대사를 지낸 유명한 경제학자 존 갈브레이드는 이런 말을 남겼다. “2차대전후 관료조직 장악에 가장 실패한 대통령은 케네디였다. 가장 성공적으로 장악한 대통령은 트루만이였다. 케네디때에는 뉴프런티어라는 旗幟만 있었다.” 다소 뜻밖이다. 케네디는 매우 화려했고, 트루만은 너무나 평범했는데 말이다.

필자가 몸담았던 정권도 민주화의 旗幟下에 많은 개혁을 했다. 그러나 관료조직을 그리 효율적으로 장악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양쪽 모두 문제가 있었다. 관료조직이야 원래가 그런 것이지만 정권은 전문성이나 관리능력이 없었다. 전문성만 따지면 오히려 군사정권때가 높았다.

YS정권도 94년 후반부터 離反현상이 있었다. 保身에 관한한 정치인은 관료의 영리함을 따라갈 수 없다.

“옛날에도 큰소리치는 X들 많이 보았지.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다 가더라고. 우리는 여기 남아 있지만”이라는 식이다. 관료조직의 이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單任制도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다른 측면도 있었다. 첫째, 민주화 투쟁경력에 자부심이 대단했던 정권세력은 관료들에 대한 심리적 복합

성(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을 갖고 있었다. 관료의 능력에 가끔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너희들은 군사정권에 아부해서 잘 살아온 X들 아니야”는 시샘과 경멸감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다.

둘째, 정권세력은 엘리티시즘과



金哲

- 본보 편집위원
-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강사

끌려 다녔다. 公私設연구소나 학계에서 개혁건의가 청와대에 쇄도했다. 卓見도 있었지만 卓上空論이 더 많았다. 청와대는 그것을 해당부처에 부과했다. 部處는 그것을 개혁방안이라고 그대로 발표했다. 記者들의 질문과 지적, 언론

리트들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관료주의의 병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관료조직을 무시하면 무사안일이라는 官僚性 중 最惡의 부분만 남게 된다.

지금 이명박정권과 관료와의 관계실상은 시간을 두고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짚이는 것이 있다. 軍事전술의 기초인 분대공격에는 미국식과 소련식이 있다. 고급부대의 전술도 마찬가지이다. 소련식은 高地점령이 최우선이다. 공격부대는 직선으로 전진한다. 進路축방의 敵에 대한 처리는 뒤따르는 후위부대의 몫이다. 미국식은 高地를 향하되 측방도 정밀소탕을 하면서 전진한다.

이명박정권의 행태는 일단 소련식의 군사교리에 따르고 있다. 다른 것은 후위부대가 없다는 것이다. 전진은 하는데 저급한 左右갈등 등 과거로부터 답습된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다. 土建策은 있되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 겉으로는 군사해보일지 모르나 이런식의 전진은 또 다시 노무현류의 一陣狂風이 불게되면 매우 취약할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正體不明과 형편없는 추진력, 끊임없는 분열상, 그리고 政權과 黨의 미약한 결합력은 임기말에 가까이 가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작금의 정세는 한국의 生存이 어느 순간 岐路에 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강화되고 美日 간에는 다른 것도 아닌 공동안보에 심각한 異變이 발생 중이다. 미국의 前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가 오바마정권과 카터정권을 비교하면서 “카터가 美國을 부드럽게 하자 세계는 거칠어졌다.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執權3년차 이반현상 나타날수도 일방적 무시땀 무사안일 현상 우려

민주화를 相反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군사정권 때에는 청와대파견 部處공무원으로 A급을 끌어 들였다. 원대복귀할 때에는 승진시키고 좋은 자리를 배려했다. 자연히 파견공무원의 출신부처 장악력도 강력했었다.

그러나 민주정권은 원대복귀하는 파견공무원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았다. 때로는 복귀 뒤에 무보직으로 몇 달을 보내는 예도 있었다. 취지는 최고權府의 權威主義를 불식한다는 理想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해당부처도 청와대에 A급을 파견하지 않았다. 자연 파견공무원의 출신부처 장악력도 떨어졌다. 결국 청와대와 해당부처간의 관계 긴밀도도 허술해졌다.

셋째, 정권세력이 관료와 관료조직을 무시했다. 반대로 관료 밖의 의견을 중시했다. 관료조직은 개혁에 마지못해

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공무원은 자기가 成案한 개혁방안도 아닌 마당에, 비판에 대한 방어력이 있을리 없었다.

사실 당시에도 우리 공무원의 자질은 우수했다. 朴正熙대통령이 힘들여 양성한 관료조직은 그때까지의 成功神話의 주역이었다.

지금 日本의 하토야마(鳩山由紀夫)정권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官僚中心에서 政治中心으로 移行한다면서 관료조직을 핍박하고 있다. 하토야마정권이 크게 참고하고 있는 英國과 日本의 관료조직沿革은 크게 다르다. 원래 英國의 관료는 정치인의 家臣으로 이루어졌었다. 영국은 지금도 명문졸업생의 A급이 정치를, B급이 학계, C급이 공무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日本의 관료는 엄격한 국가고시에 의해 선발된 엘

‘건강 포럼’을 ‘행복 포럼’으로

노년기에 들어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뭘까? 역시 건강 일 것이다.

나는 10여 년 째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환자의 9할 정도가 노인들이다. 그래서 젊은이가 병원에 와 진료 받는 것을 보면 한편 딱한 생각도 든다. 난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을 여의도 성심노인병원, 삼성노인병원이라고 부른다.

대한언론인회--그 구성원들이 전부 60세 이상인데다 이번 회수연에서 보듯 50여명의 회원이 회수기념패를 받았다. 내년엔 더 많은 수가 회수란다.

주류가 70세 이상이고 90세 이상인 회원도 있고 보면 ‘건강’에 특히 신경

을 써야 할 곳이 대한언론인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요즘 보면 노년기에 들어서도 비교적 건강하게 보내는 경우가 흔하지만 노년기 부부생활은 별로인 먼 나라 얘기같이 사는 부부가 많다는 사실이다. 노년기에 맞는 건강한 부부생활이 있을 때 행복한 노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날 조창화 회장에게 “요즘 노년기에 건강문제와 더불어 노년기 성(性)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건강포럼을 만들고 전문가를 초빙해 매달 강좌를 열면 어떨까요?” 하고 건의를 했다. 이래서 탄생한 것이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 합작의 ‘건강



이보길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해설위원

포럼’이다.

한국성과학연구소의 소장인 이윤수 박사는 한국 비노기과 전문의로 특히 성보형물 시술의 선두 주자다.

2008년 6월 드디어 강좌가 시작됐다. 전담 강사인 이윤수 박사는 노년기의 비노기질환을 비롯해 일반적인 건강문제와 특히 노년기 성문제, 노년기의 행복한 부부생활 등 매달 흥미 있고 진지한 강의를 해나갔고 어느때는 여성전문의를 강사로 초빙, ‘복상사의 실체’에 대해, 또 어떤 때는 성전문가를 초빙해 ‘성 실태와 노인들의 성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는 한 달에 한번, 토요일 오후 2시 시작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줬고 어떤 회원은 친구와 같이 동행해 강의를 듣는 열성도 보여줬다. 강의가 끝나고 인근 치킨집에서 열리는 뒤풀이도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다.

2010년 새해에 거는 소망과 국가적 과제

經濟 — 고용증대 여부에 성패 달렸다

2010년 한국경제는 4~5%의 성장을 나타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새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일 자리 창출에 두고 고용증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출구전략의 이행시기와 수준을 비롯, 원·달러환율과 유가 등 국제원자재값 동향, 잔존하는 세계 금융 불안과 특히 재정적자가 과도한 나라의 국가부도 위기 요인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많아 새해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5%가 가장 높고 한국은행 4.6%, 삼성경제연구소 4.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4.2% 순이다. 외국기관으로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5%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치 들은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는 수준이다. 위기전 연도별 성장률은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 2008년 2.2%였다. 그리고 2009년은 당초 마이너스 성장전망에서 소폭(0.2%)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 수준이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 4%로 전망했다가 0.25% 플러스 성장으로 수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았다.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모두 재정지출 확대와 초저금리, 세제 지원정책 등 경기부양 정책을 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제 경제 회복과 성장 전망 단계에서 그동안 정부가 펴 온 경제부양 정책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새해 경제동향을 가름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효과와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 12월말 결산 법인의 매출액 중 8%정도는 환율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2009년 누적 3분기(1~9월) 이들 법



최희조

· 본보 편집위원
· 중부대 초빙교수

계경제의 순조로운 회복세와 위기 이후 그 비중이 커진 중국의 내수부양 정책 방향도 주요 변수이다. 국내의 민간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새해 민간 소비는 4.2%, 설비투자

국내 30대 기업의 60%가 새해에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다.

환율불안을 비롯, 국제경기침체, 국제유가, 남북관계, 가계부채증가,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혼란, 고용과 내수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는 이른바 더블 딥(double dip)을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가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걸 말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그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원화 가치와 유가, 금리가 동반상승하는 3고 현상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국제유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도 불안요소가 된다. 금융불안이 재발할 경우 단기성 외화자금 유출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우려된다. 새로운 변수로서 우려되는 불확실성은 나라 빛이 많은 국가의 부도위기와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이다. 이미 2009년말 두바이사태에서 그같은 위험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스 등 위험국가로 분류되는 나라가 많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채무확대 추세로 볼 때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재정 확장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금융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해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밝혔다.

경기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처방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승부처는 원론적으로는 외부충격에 약하고 고용흡수 능력이 적은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출구전략을 어떻게 절묘하게 구사해 위기재발 방지는 물론 경제성장을 정상화 하고 무엇보다 고용을 늘리느냐에 새해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 [E]

국내외 상황 불확실성 아직도 안가서 외부 충격 극복 - 적절한 出口전략 필요

인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수출비중 50% 초과 법인의 환율효과는 매출액의 10%를 넘었다. 이명박정권 출범 직후인 2007년 3월에만 하더라도 원·달러환율은 미화 1달러에 930원대였다. 그러던 환율이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후 급등해 2009년 2~3월 1500원대까지 치솟아 오르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갔다. 이후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 최근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가다 국내 금융사상 최저인 한은의 기준금리 2%와 통화 재정지출 확대, 조세지원 효과까지 감안하면 국내기업의 매출증대와 경제성장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위적인 경제부양 조치들을 제거하면 경제지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출구전략의 착수시기와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것이다. 경제부양책의 효과는 경기회복에 점진적이지만 긴축정책의 효과는 급진적이란 이론이 있다. 쿠파 효과가 그것이다.

새해 경제가 4~5% 성장하려면 수출이 두 자리 수 이상 높아야 하는데 증가율이 이미 2009년 한 자리 수를 나타냈다. 환율이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올라 수출가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의 성장기여에 적신호가 될 수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 세

는 11% 늘어나는 것으로 경제운용계획을 세웠다.

민간소비는 개인소득이 늘어나고 가계부담 이자비용이 감소하며 보유자산 가치의 상승기대가 있을 때 본격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소비지출의 원동력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큰 문제이자 과제인 것이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도 고용은 늘지 않고 감소하는 상황이다. 제조업의 고용효과가 떨어져 서비스산업에서 이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취약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유발 효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2009년엔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2010년엔 민간 기업부문에서 창출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새해 취업자수 증가인원은 작년 대비 17만명이다. 작년엔 7만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취업자수 증가인원은 29만여명, 2007년에 28만여명이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상당히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세계와 한국경제에 아직도 불안 요인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불안 요인들은 개별 문제가 아니라 상호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요소들이어서 총체적 처방을 어렵게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진료 결과 무려 7명의 전립선 암 환자를 발견, 이들을 암에서 건져냈다는 것이며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중앙대의료원에서 천 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받지 않고 첨단 기계로 시술 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포럼 탄생과 성장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준 조창화 회장

과 열심히 참석해준 회원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포럼장면을 촬영해준 심재복 회원, 또 이운수 박사와 송영용 한국전립선협회 사무국장, 권성원 박사, 김세철 박사께 감사드리며 '건강포럼'이 계속 이어져 회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행복포럼'이 되길 바란다. [E]

4면에서 이어집니다.

토요일 오후--시원한 생맥주 파티--최근 들어서는 뒤풀이 경비를 경쟁적으로 내 담당자를 즐겁게(?) 했다.

지난 11월 '건강포럼'의 1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1박2일의 함안 인산가 방문엔 지난 1년간 포럼에는 한 번도 참

석하지 않은 회원들도 많이 참석해 건강포럼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역시 건강포럼의 하이라이트는 2008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전립선 무료검진'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연인원 320여명이 진료를 마쳤는데

2010년 새해에 거는 소망과 국가적 과제

言論 — 신뢰와 존경받게 체질개선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언론관계법을 18대 국회가 지난해 개정하여 노무현 정권의 언론 통제 일부를 풀었다. 노정권이 2005년 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미디어법을 이명박 정부가 4년 만에 개정하여 좌파정권의 보수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 대못을 뽑은 것이다.

그러나 2001년 김대중 좌편향대통령이 불붙인 좌파 정치 세력과 보수언론과의 전쟁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폄하한 언론의 권위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언론계 내부의 정파저널리즘 논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1년 여름 동아일보 조선일보 두 언론사주 구속으로 본격화된 좌파 정권의 언론과의 전쟁은 한국 정치와 언론의 후진성을 드러낸 이천투구(泥田鬪狗)였다. 언론은 탈세·불법판촉 활동·권언유착·일제하 굴절 등으로 인민 재판을 받았고 언론과 전쟁을 시작한 김대중 정부도 IPI (국제 언론인 협회)로부터 언론자유 감시 대상국으로 경고를 받았다.

IPI가 2001년 9월 6일 김대중 정부를 언론자유 감시대상국으로 결정한 것은 8월 17일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게하는데 앞장섰던 동아·조선 두 사주를 구속한 20일 뒤였다. 한국의 언론사주가 구속되기 딱 한 달 전인 7월 17일 위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낙선을 하야시킨 워싱턴포스트의 캐서린 그레이엄 사주가 타계했을 때 미국 조야는 고인을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실천한 언론인으로 높이 평가하고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

2001년 여름 강력한 정치 권력과 맞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던 두나라 언론 사주에 대한 대조적인 대우는 두나라 정치 문화의 수준차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한국 신문의 관습화된 윤리 무감각이 불러온 재앙이었다는 한국 언론계의 자성론도 있었다.

김대중 정권의 언론 사주 구속을 신호로 한국 언론은 비리와 부조리로 얼룩진 '똥친 막대기'로 매도당했다. 일부 노사모는 특정 신문 비방 운동을 공공연하게 벌여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유력 신문을 나쁜 신문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언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언론 죽이기가 8년간 지속됐다. 출범초 언론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한 노무현 정권도 언론통제법을 만들고, 취재를 통제하는 등 언론과의 싸움을 집권 말기까지 멈추지 않았으나 노정권이 만든 언론관계법은 현재가 위한 판결을 했고 학자들은 자살한 노무

현전대통령이 한국 언론을 절대군주시대의 권위주의형이나 공산권 이념지로 후퇴시키려고 했다고 혹평 했다. 가해자인 좌파정치 세력이나 피해자인 언론 모두 큰 상처를 받았다.

21세기 초입 한국 저널리즘을 둘러싼 갈등은 애시당초 정치적 헤게



박석홍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과 정치인의 비행을 폭로하는 정파저널리즘의 구태의연한 적대적 보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언론학계로부터 받았다. 책임 있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 수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것

사실은 2001년 여름 김대중 정권이 보수 언론 사주를 구속 하기 전 언론계 내부에서도 한국언론의 새 좌표를 모색하는 언론개혁을 활발하게 논의했었다. 90년대 중반부터 관훈클럽,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연구원 등이 21세기 한국 언론의 새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① 언론인의 윤리 및 언론사의 관행적인 비리 ② 언론 소유주와 기자의 관계 ③ 언론의 편견 ④ 언론의 권력화 ⑤ 언론 소유 및 시장 구조 ⑥ 언론의 편견 ⑦ 권력과 언론의 유착 ⑧ 언론인 선발과 교육시스템 등 언론의 윤리 확립과 언론인 교육이 주의제였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관습화된 많은 부조리와 모순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그 청산도 다짐했다.

이런 논의를 집약해 관훈클럽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는 2000년 10월에 '한국 언론의 좌표'를 발표하고 21세기 한국 언론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사찰 파동에 밀려 선언으로 그치고 말았다. 언론 스스로 개혁할 시기를 놓쳐 언론사주가 파렴치범으로 구속되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10년 좌파정치 세력의 보수언론 비난은 과장되고 일부는 왜곡된 것이었다. 좌파 정치세력의 비방과는 반대로 보수 언론은 오히려 한국 근현대사에서 변혁의 주역으로 역사 발전의 동력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 이승만 남궁억 주시경 등 애국계몽 시기의 언론인과 그들이 만든 신문은 전근대 중세사회 모순과 식민지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건국60년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언론은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권언유착·정파저널리즘·신문사 특혜추구 등 윤리 문제와 상업주의는 언론 스스로 청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시대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비판공격 저널리즘이나 종합 편성방송채널 진출권을 노리는 일부의 환경감시기능 포기 등이 그런 것들의 편린이다.

신뢰와 존경을 받는 언론을 위해 한국 언론의 뿌리 깊은 병인 정파저널리즘·상업주의 극복과 언론윤리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 자유와 독립·객관보도·공정성·진실 추구 등 언론의 직업적인 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해 정파저널리즘 단계도 탈피하지 못한 아마추어 수준의 후진성 극복 등 한국언론의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정파 저널리즘 - 상업주의 극복 시급 스스로 싸움무대 오르는 일 없어야

모니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창조적 비판이나 한국 언론의 맹점에 관한 논쟁이 아니었다. 이 싸움에 동원된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이데올로기 논쟁도 정치 싸움의 변형이었다. 한국 현대 문화에서 가장 후진적인 정치와 언론의 모순이 복합되어 최악의 사태를 노증한 것이다.

임상원 고려대 명예교수(언론학)는 김대중시대의 언론 갈등은 정치 사회 문화 갈등이 언론갈등의 양식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저널리즘을 권력 쟁취나 유지를 위한 도구로 간주한 결과 생긴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와 보수신문과의 전쟁은 좌파정권이 제정·개정한 언론관계법을 헌법재판소가 2006년 위헌 판결을 했고, 대법원이 언론사주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확정함으로써 법적인 논의는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21세기초 불명예스런 정치와 언론의 전쟁으로 한국언론은 선진 언론의 기본 조건인 언론자유와 언론인의 윤리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정치 권력과 언론의 밀착에 의한 정파저널리즘의 역기능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언론의 정파저널리즘과 상업주의의 함정은 이른바 진보 보수 양 진영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른바 진보를 표방한 언론의 이데올로기성 반정부 선전 선동은 물론이고 보수진영 언론의 정파주의 저널리즘(partisan journalism)의 적대적 비판보도 관행도 극복 해야할 대상이다.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이 전쟁 대상으로 지목한 신문들은 좌파정부와의 전쟁에서 좌파정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론화 하지 못하고 대통령 비판 공격

이다.

진보 언론을 표방한 언론사나 소속 기자들도 조용한 관찰자가 아니고 스스로 싸움 무대에 뛰어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 저널리즘이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분노의 저널리즘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 결과 갈등이나 충돌을 강조해 수용자들에게 갈등과 충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인식을 심어 주기도 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지 못해 수용자의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신문과의 갈등은 학문 연구대상이 될만한 특이한 것이었다. 언론과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지만 이에 맞선 언론의 행태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2008년도 통합 교과형 논술고사를 둘러싼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논쟁 기사는 대학 교육 정상화 탐사와는 거리가 먼 말싸움만 독자에게 전달했다. 정파성 공격 저널리즘의 전형인 폭로저널리즘 수준에 머물러 의제 설정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다.

대통령 공격에 혈안이 되어 낡은 레코드판을 돌리는 판에 박은 비난으로 그치는 기사도 많았다. 김·노 정권과 전쟁을 하며 신문들도 조심스런 분석 및 탐사보도보다는 투쟁과 불협화를 주제로 삼는 보도 행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언론의 정파주의는 그 나름의 이론과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공과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정파저널리즘 극복 등 언론 윤리 확립은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 못지않은 한국 언론의 과제다.

2010년 새해에 거는 소망과 국가적 과제

放送— 연예권력집단 개혁元年으로

필자가 발행하는 미디어워치 31호 기사에서는 개그맨 김구라의 이명박 대통령 및 우파 인사에 대한 막말 경력을 밝혀냈다. 김구라는 판지일보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파 인사들에 대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노무현 정권의 눈에 들어 출세가도를 달린 케이스. 특히 김구라는 현 이명박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로서 서울시장 재임중인 2003년 11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노가다 십장 XX”, “이 XX 멀치 대가리” 등등 인신공격형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노무현 정권에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렸다.

우파 인사에 욕설 퍼부어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4년 10월, 김구라는 정연주 사장 시절의 KBS에 의해 파격적으로 KBS 라디오 ‘12시 가요광장’ MC를 맡는다. 정연주 사장은 ‘12시 가요광장’이 공영방송 KBS의 대표적인 음악프로임에도, 음악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무명의 욕설 개그맨 김구라를 기

용한 것. 이 사이 2004년 탄핵 당시에도 김구라는 “한나라당은 아이큐 70이어서 70석을 얻을 것”이라며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등 우파의 역사적 인물들과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로 인신공격을 퍼부은 ‘한국을 조진 100인의 개새끼들’이라는 노래를 기획, 공연에까지 나서기도 했다. 미디어워치의 보도 이후에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서 김구라의 욕설 방송을 시현하며 방송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MBC 공정방송노조의 한 간부는 “김구라 같은 저질 연예인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구라는 이를 비웃듯 곧바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우리 아버지’ 코너를 맡으며 건재를 과시했다. 물론 예전의 막말 연예인이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로 변신했다. 김구라가 같은 MBC ‘황금어장’에 출연한 모 여성 그룹 멤버에게 “1980년대 인기 배우였던 아버지가 ‘애마부인’ 등 예로영화에 출연하셨는데 DVD 같은 것을 소장하고 계시지 않느냐”며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며 남의 아버지를 모욕해왔던 점을 상기해보면 또 다시 기회주의적 변신이다. 이에 김구라는 최근 MBC ‘황금어장’에 출연하여 이미지 변신 이유로 “어쩌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 기회바서 돌아가겠다”라며 비판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국회 비판에도 여전히 활동

김구라의 이러한 오만은 비대해진 연예기획사들의 권력과 맞물려있다. 김구라는 이경규, 김국진, 이윤석 등 스타

MC를 보유한 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최근 이들 거대 연예 기획사들은 각 방송사에 스타 권력을 무기로 제작권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권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MC 유재석 소속사인 디초컬릿은 MBC에 제작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특별기고



변희재

· 실크로드 CEO 포럼 대표

걸렸다. 역시 디초컬릿 소속의 고현정은 자신이 출연하는 토크쇼 프로그램 방송사와 전혀 협의없이 기획하고 있다. 고현정 정도의 스타가 참여하는 토크쇼라면 기존의 방송3사 및 신규 종편 방송사가 눈독을 들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게 되면 방송 자유화의 혜택은 신규 참여 신문사도

서 제작자로 넘어오면서 미국 대중문화 산업은 일대 전성기를 이룬다. 청년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도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났다.

한국 역시 2000년 이후 한류의 성장으로 이러한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미국식 공인에이전시 제도를 응용한 공인연예인기획자법을 발의했다. 그뒤 장자연 사건 때 연예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이 법안 이외에도 연예매니지먼트법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비대한 연예산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만 시도되면 좌우 양쪽에서 이를 비판한다. 좌파 진영에서는 연예권력을 활용하여 정권타도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예산업 개혁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실제로 좌파진영은 김민선의 청산가리 발언의 위력을 체감하며 이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하다. 반면 우파진영은 규제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빠

정연주 비호받은 김구라 아직 전제 左派의 정권타도 투쟁 보루 안돼야

상황이다.

특히 MBC의 경우 이들 연예권력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정권 타도를 위해서라면 MBC의 자산까지 내주더라도 연예권력을 키워내겠다는 자해공갈까지 벌이는 방송사이다. 김구라가 유독 MBC에서만 연간 5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숨겨진 이유로 보인다. 이들 연예권력들은 방송시장 자유화에 따른 종편 채널 개설을 앞두고 더욱 기세등등하다. KBS, MBC, SBS 측에 만약 제작권을 내놓지 않으면 신규 종편 채널 방송사와 협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신규 방송사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대형 스타가 참여하는 연예나 드라마 방영이 필수다. 제작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광고수익 전체를 넘기더라도 일단 시청률 20% 이상의 연예 드라마 프로그램 확보에 비상이

아니고, 시청도 아닌 연예권력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들 거대 연예 기획사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호시탐탐 방송권력을 노리고 있다.

연예개혁 입법 즉각 도입을

1970년대 이전, 영화와 방송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산업이 급격히 성장했던 미국도 그랬다. 이에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브로드웨이가 있는 뉴욕주에서는 연예권력을 제어하는 공인에이전시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연예인의 계약을 대행하는 에이전트는 공인자격증을 확보해야 하고, 이 에이전시 회사는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업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법이다. 이러한 미국 주 정부의 노력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1970년대 이후 이 법의 긍정적 영향으로 대중문화 시장이 연예권력에

저 연예산업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 연예산업 개혁입법이 시장과 기업의 천국인 미국 제도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 의무

2010년 연예산업 개혁의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김구라, 김민선 등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연예권력은 대한민국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연예계가 좌경화된 영화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노좌파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방송 자유화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린다. 방송 시장 자유화는 보다 큰 시장을 이루어 다양한 청년층이 다양한 방송콘텐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독점화된 연예권력들이 모든 시장을 장악한다면, 차라리 지금의 방송3사 체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의 문제이다. 장자연 사건 이외에도 연예계에서는 폭력적 무질서 탓에 수많은 지방생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2010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와 방송계의 개혁과제는 첫째도 연예권력 개혁, 둘째도 연예권력 개혁, 셋째도 연예권력 개혁이 되어야 한다. 연예권력이 대중문화 계의 모든 부조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7]

太平路 만평



좌파 난동꾼 혼내주는 호랑이 해로

· 심재복(본회회우)

일하는 대통령 발목만은 잡지말자

민주국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에 관해서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물론 필부에 이르기까지 비판하고 왈가왈부 한다. 비판의 도마 위에 상장된 대통령은 때로는 지지도 받지만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일방통행식 독주자, 소통과 포용이 부족한 정치력 부재자, 심지어는 독재자란 명예스럽지 못한 비난도 퍼붓는다. 국민의 공명정대한 직접선거로, 그것도 차점자와 500만 표차로 압승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가능하다. 권력을 세습한 북한에서는 최고 통치자를 독재자라고 호칭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에 대한 언어폭력은 민주국가에서 애교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일 자리를 창출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미래에 먹고 살아갈 준비를 위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일을 하려는 대통령의 발목만은 붙잡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이 대통령은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정치'보다 '정책'으로 일하는 스타일이다.

정치인이나 정치색이 짙은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타결하라고 권고한다. 이 말은 정치적 야합을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업CEO 출신이어서인지 태생적으로 여의도식 정치를 싫어하고, 정쟁에 초연해서 국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보다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자신의 정책에 확신이 서면 반대가 있어도 타협보다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의지를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월 15일 헌정회(회장 양정규) 회원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제 임기 중 대단한 일을 이룰 수는 없다고 해도 다음 정권 이후에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기초를 닦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한다. 그 일은 어렵고 인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만을 확실히 하면 이다음부터는 5년, 10년 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5년을 10년처럼 일하려고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법질서와 원칙을 세워 나라의 기초를 닦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엔 이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의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세속적인 정치만을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안 보일지 몰라도, 이 대통령은 정책으로 수준 높은 정치를 하고 있다. 한 쪽 이념에 치우친 지상과

時 論



김 화

· 본보 논설위원
· 영화평론가

업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한 것은 당리당략보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위민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이 구 장르가 아니라 신 장르이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의 안목에 잡히지 않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단수는 DJ를 능가하는 정치 9단이다.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일관되게 반대만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 사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정치적 타결’ 강요는 ‘야합’ 하라는 말

방송을 지난 두 대통령처럼 세무사찰로 유치하게 압박하지 않고 미디어법으로 제압했으며, 친 서민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길거리 정치로 당력을 소비하고 있는 동안 서민을 겨냥한 중도통합정책을 기습적으로 내놓아 야당이 선점했던 정치 어젠다를 피를 흘리지 않고 탈환했다. 녹색성장을 미래 산업동력 비전으로 제시해 진보 시민단체가 무색할 만큼 기선을 제압했다. 어디 그 뿐인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나라당 안의 라이벌인 박근혜의 힘을 뺐다. 이 대통령은 “나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음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훨씬 불리한 입장에 섰지만 다음 정권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공여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고도의 정치행위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이 대통령은 정치 초년생이 아니라 고도의

다. 영산강과 금강을 한 번이라도 둘러본 사람은 수질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수질 개선 사업은 앞으로 닥쳐올 물 기근에 대비한 국가적 사업이다. 대운하사업과는 근본이 다르다. 더욱이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농수산위는 4대강 사업 예산 중 96개 저수지 독 높임 사업을 연계해 여야가 윈윈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농수산부의 여야 합의를 백지화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더 나아가 4대강 예산은 합리적 토론으로 풀 수 없고 야당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르고 있다.

얼마 전 이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청와대 기록까지 카메라에 비추면서 밝혔지만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획예산을 세운 국가적 정책사업이었다. 민주당

이 여당일 때 추진한 사업을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면 자기배신이며 논리적 배반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수질 악화와 수량부족에 시달리는 4대강을 살리자는데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만 거부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계수조정이라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여당 강행처리에 둘러리만 설 뿐이다. 이 대통령의 4대강 수질개선사업 의지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물론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야당 설득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전형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민주당도 여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대통령이 맘먹고 하는 국책사업에 흠집내기 위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토론과 협상을 통해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민주당의 앞길이 열린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할 때 당시의 야당의원이었던 김영삼 김대중의 반대가 떠오른다. 그 때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합리적 토론을 반대한다면 무슨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인가. 혁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사업에 당리당략에 얽힌 습관적인 반대는 선진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친 서민정책과 병행해서 서민방문 행보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다. 며칠 전에는 옥쟁이 할머니 가게를 찾아가 위로하고 목도리를 선물했다. 설령 쇼라고 해도 이런 쇼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지난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라. 대통령의 친 서민 행보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한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따뜻한 목도리 한 개라도 선물한 적이 있는가.

이 대통령은 지금 하고 있는 고도의 정치 못지않게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반대파 설득을 잘 해야 위대한 정치가 반열에 오른다. 그리고 야당도 일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발목만은 제발 잡지마라. [4]

서설속 도봉산 송년산행 본회 산악회 20여회원 참석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지난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도봉산에서 서설속 송년 산행을 가졌다.

이날 송년산행은 안종우 산악회 회장, 홍원기 본회 부회장, 지용우, 김영효,

정운종 회우등 20여 회원이 참석, 기축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1년동안 무사 산행에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다.

이날 산행뒤 오찬과 모든 경비는 안종우 회장이 부담했다. [4]



도봉산 입구에서 기념촬영.

韓日併合 100周年 國格을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 話頭 제격

비교적 말수가 많고 긴 편인 이명박 대통령이 세모의 문턱에서 모처럼 제격인 화두를 내 놓았다. 짧되 굵은 뜻을 품었기에 공명의 파장도 넉넉하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몸집에 걸맞게 국격(國格)을 높일 때가 됐다”는 게 대통령 발언의 줄기다. 알맹이는 국가의 고품격화다. 언론과 지식사회는 2009년 MB어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아이콘 가운데 하나로 뽑아 들었다.

본디 국격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엔 없지만 한자의 생김새대로 나라의 품격을 이르는 말이다. MB의 국격론은 타이밍도 딱히 잘 쏘였다.

범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경제 한파 속에서 한국 정부의 위기 극복전략이 국제사회에서 모범답안으로 수용된데 이어 이명박이 제창한 저탄소녹색성장론이 지구촌 최대현안인 기후변화대책과도 맞물린 탓에 국제적인 대화두로 자리 잡았다.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MB모드(mode)의 성공은 G20 정상회의 유치성사로 절정을 이룬다.

이명박 국격론의 성량(聲量)이 푸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새해 한국경제 성장치가 5% 대라는 장밋 빛 전망이 나온 것과 때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국격 제고론은 선진화 욕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언필칭 선진화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경제적 풍족, 정치적 안정성, 사회적 공정성, 문화적 창의성, 국제적 신뢰성의 확충 따위를 꼽는다. 우리의 경우는 극복해야 할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명제(命題)와 맞닥뜨려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고질적인 분단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거칠게 내려앉은 이념 풍토를 가지런히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권력이 뿌린 분열 유전자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건국사관(建國史觀)은 제자리를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날 이른바 진보 정권은 우리의 현대사를 향해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능멸 했다. 독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버틴다. 허허 별판에서 나라세우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피땀 눈물을 반죽하여 쌓아올린 번영의 금자탑이 눈부시지 않는가. 산업화 민주화의 농축성장을 동시에 성취하여 온 세상이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거늘.....

國父무덤에도 권력의 칼바람

우리의 초상화를 빗대어 ‘부끄러운 얼굴’로 매도하는 잡한(雜糞)들의 잡설(雜說)은 호랑이를 잡기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 애국지사들의 은인(隱忍)의 깊은속을 이념잣대로 싸잡아 ‘친일파’로 몰아세웠다.

가당치도 않은 심술이다. 굵주린 북녘 땅의 인권을 말하면 북한을 자극하는 냉전 논리라고 팔팔된다. 이 못난 날뽀들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국격’을 노

래한들 제대로의 화음이 울려 퍼질 수 있겠나.

국격은 한마디로 나라의 풍채(風采)다. 살찌고 기름졌다 하여 돋보이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걸치레에 기울면 자칫 졸부의 허풍으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70년대 전후부흥에 성공한 일본이 기고만장할 때 세계인들이 이코노믹 애니멀(economic animal)이라고 비웃은 것을 상기할 필요는 충분하다. 비록 넘칠 정도

는 못되어도 남의 어려움을 들어 줄 정도의 ‘차분한 곳간’이면 족하고 깨끗한 기상에 속이 짝 찬 건강한 나라, 제대로

政治



정 재 호

- 본보 논설위원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논설위원
- 현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建國史觀 제자리 찾는게 急先務 李承晩대통령 동상 세워야 한다

된 국격의 참모습이 아닐까.

속을 짝 채우려면 정신적인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 진정한 국격 완성의 지름길은 건국의 뿌리를 생각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에는 가뭄이 들지 않는 법이다. 건국의 뿌리 이승만의 진면목을 진정으로 만드는 속죄의 의식(儀式)이 선행돼야 할 법하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된 일을 저질렀는가를 뉘우쳐야 한다. 한가지 해괴망측한 사실을 ‘진실’의 이름으로 역사 앞에 고발해야 할 일이 있다. 1998년 이승만 부인 프란체스카여사를 합장(合葬)할 때 까지만 해도 대통령 이승만이란 비석을 세우지 못했다.

유족들은 비로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우남(雲南) 이승만 박사 내외분의 묘’로 새긴 비석을 준비했다. 벼락같이 DJ(김대중) 정권에서 ‘건국’을 삭제하고 ‘초대’로 고쳐 새긴 묘석을 세웠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건국대통령묘비’는 지금 남의 눈에 잡히지 않는 땅 속 깊이 묻혀있다. 초대 대통령과 건국대통령은 어떻게 다른가.

‘건국’은 문자 그대로 나라를 세운 대통령이다. ‘초대’는 건국과는 무관한 첫 대통령일 뿐이다. 이승만의 서거 당시 언론은 ‘서거’ 대신 ‘운명(殞命)’이라고 썼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 간사한 권력의 칼바람이 건국의 아버지 망령 앞에서도 수작을 부린 것이다. 경을 칠 일이 아닌가. 이 나라에는 ‘국부’를 기리는 흔적 따위는 없다.

사방천지 어디에도 건국의 잔영(殘影)은 없다. 지구상에 건국대통령의 은덕을 깡그리 외면하는 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승만이 생전에 거쳐했던 이화장엔 궁색하게 차지하고 있는 빗바

랜 사진들이 걸려 있다.

건국 전후의 이승만 자취들이다. 유일한 건국의 역사현장인 셈이다.

첫 내각진용을 쫓던 조각당(組閣堂) 지붕에는 비바람이 때린다. 습도 탓에 벌레가 낀다. 유품을 간수할 수장고도 없다. 얼마 전 종로구청에서 3천 100만원 재산압류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이화장 안에 도로용지가 포함

되어 사용료가 밀린 탓이란다. 기가 찰 노릇이다. 어찌 이런 일이.... 말문이 막힌다. 겨울이면 더욱 을씨년스러운 이

화장, 건국의 아버지 구택에 나라의 손길이 끊긴지 오래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1875.3.26~1965.7.19)은 누가 뭐라해도 대한민국의 국부다. 어느 아비에게도 흉허물은 있다.

어떤 지도자도 공과와 명암을 건너뛸 순 없다. 나라 살림살이의 80%를 미국 원조에 매달렸던 최빈국의 지도자였지만 미소 강대국의 농간을 단호히 뿌리쳤던 거인이었다. ‘자유민주’를 대들보로 박고 ‘시장경제’를 서까래로 올려 나라의 대본(大本)을 굳혔다.

대업(大業)은 결코 지워질 수 없을 터이다. 북의 침략을 끝내 막아냈다. 우격다짐으로 미국을 부여잡아 한미 방위조약을 이끌어 낸 것은 이승만의 선각자적인 해안의 결과다.

한미동맹이야말로 후일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시대를 거쳐 오늘로 이어진 번영추구의 큰 밑천이요 소중한 틀이다. 건국의 이승만과 근대화의 박정희 두 거인을 나란히 세워 나라의 등줄기인 백두대간(白頭大幹)으로 비유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이승만의 생애는 약소국의 슬픔을 온몸으로 부딪쳐 치열하게 싸워온 투쟁사로 채워진다. 일거수일투족 하나같이 애국애족의 화신이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의 유명한 대격언(大格言)이다. 4강구도 속 한반도의 명운을 길게 내다본 그의 절규는 남북통일의 험로까지를 함축한 국가 생존의 이정표를 오늘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는 수도사를 닮은 철저한 금욕자였다. 삶의 눈높이는 늘 밑바닥 서민에 맞춰 졌다. 그

는 권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스스로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행동한 사람이다. 최고 통치자로서 사태 발단의 빌미를 흘리고 통제력을 상실한 정치적 책임은 무한하다.

그러나 인간 이승만 내면의 도덕성은 청량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봉기 소식을 접하면서 이승만이 피력한 소회가 이를 뒷받침 한다.

“젊은 학도들이 부정을 보고 들고 일어난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잘 한 일이야” 대통령 이승만의 비망록에 적힌 ‘육성’이다.

‘革命戰士’의 눈물과 다짐

덧붙여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눈물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다. 그는 누구인가? 급진적 좌파운동권 출신이다. 서울대 재학 시절부터 펄펄 끓는 혁명의 꿈을 주체하지 못해 노동현장에 투신한다.

15대 국회에 진출하기 전까지의 그의 이력은 제도권에 맞서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몸으로 맞짖든 좌파활동이 전부다. 국가 보안법 반공법에 걸려 2년 반을 옥살이한 기록이 이를 증거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분명히 혁명을 지향한 ‘전사(戰士)’였다. 얼마 전 공개 연설에서 “공부가 부족하여 지난날 길을 잘 못 들었다”면서 젊은 날의 ‘철부지’를 사과했다. 이승만 전기와 이박사의 개인적인 일화를 담은 프란체스카의 책을 읽고 감동하여 눈물을 펄펄 쏟았다고 했다.

이승만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냉담한 사회풍토를 신랄하게 비판한 김문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를 존경할 줄 모르는 오늘의 우리 지식교육수준과 이런 역사의식으로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야멸차게 썼다. 그 뒤 이화장을 방문했을 때다. 청추(靑秋) 시절의 햇살이 가득했지만 이승만 기록전시장 안팎분위기는 파리하고 해쓱하기만 했다. 돌아서는 차안에서 김문수는 다시 한 번 찡한 복받침에 눈물을 흘렸다. 겉으로 본 김문수는 ‘눈물’과는 거리가 멀다. 마른 체형이 되레 아무진 인상을 풍긴다. 안경 속으로 싸늘하게 운나는 눈매. 청빈의 그늘이 묻어 있는 얼굴엔 글 줄을 읽은 흔적도 드리워져 있다. 아마도 한 두 해면 60줄로 들어선다고 했던가. 그가 옆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제대로’ 눈물보를 터뜨린 까닭은 무엇일까.

대권(大權) 주자로 심심찮게 남의 입질에 오르는 이른바 잠룡(潛龍)중 한사람이 아니던가. 박정희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 국책 프로젝트를 사사건건 반대한 것을 후회한다고 내놓고 말하는 그다.

김문수의 이승만 박정희 존경론의 진정성에 대해 ‘색안경’을 끼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좌파에서 우파로 확실히 돌아섰음을 과시 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이다. 글썽다. 한가지 확실한 증언을 귀담을 필요는 있다.

10면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가슴도 차가운 머리도 모자랐다

2009년을 마감했다. 2009년 한국은 ‘4대강’과 ‘세종시’ 시비로 세월을 다 보내면서 갈등과 대립의 극치를 실연한 장이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주먹질과 집어던지기로 맞서는데 이골이 난 한해였다.

국민의 심성은 크게 뒤틀리고 뜨악해졌다. 따라서 말투는 거칠어지고 행동은 난폭해졌다. 자기주장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화해와 관용은커녕 배려와 겸손도 몰랐다. 이해관계를, 사고의 차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주는 기능도 모자랐다.

마치 반세기 전, 김승옥이 쓴 ‘1964년 겨울’이 포착한 형상을 보는 듯했다. 외양은 바뀌고 세계가 극찬하는 성장을 일궈어도 소시민들의 미래는 밤안개처럼 희미하고 사회윤리는 깜박거리는 네온사인처럼 초조하다.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화두는 고작 축구와 김연아, 장미란, 선덕여왕 정도이니 이 무슨 희한한 일인가.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나들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할 만큼 대접을 받아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더불어 향유하는 시간과 공간이 확대되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 자격은 난망이다. 중대한 정책들이 갈피를 못 잡고 언론매체는 자사이해관계에 얽매어 눈치만 보았던 한해, 분발을 촉구한답시고 좌충우돌했던 필자의 2009년은 우울함만 남겼다.

동유럽의 소국이며 최빈국가인 알바니아의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의 해머와 쇠파동’이 화제이더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물론 외신들의 타전을 통해 습득한 정보였겠지만 우리의 언론들은 큰 불구경이라도 하는 듯 부끄럽고도 못된 작태들을 대서특필하는데 열중이었다. 방금까지 욕설과 먹살잡이를 했던 여야 당지도자가 곧바로 사적인 자리에 참석해서는 호형호제하며 화기애애했다니 그들의 공적 행동은 국민의 눈을 염두에 둔 기만적 행동임이 분명한데도 정치면의 단골 메뉴로 여과 없이 중계 보도하는 언론은 과연 사안의 진실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겉 다르고 속 다른 저질 쇼에 대해 아

예 무관심으로 치지도 외(置之度外)해 약발 없음을 보여줄 배짱조차 없는 것인가. 응석받이의 양탈 버릇을 고치는 데는 일정시간의 무관심과 방치가 특효임을 자식 길러본 사람은 다 알지 않는가. 혹 편집국의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시스템이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뉴스밸류를 가늠하는 잣대의 재설정이 꼭 필요하다. 타성과 편의성에 길들여진 작금의 제작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심지어 노조까지 변하고 있는데 언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을 저버리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독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정치권 난동 경쟁적 보도 고쳐야 뇌물사건 실체 규명 노력 안보여

수모를 겪게 된다. 패러다임의 변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연말이면 신문마다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한다. 그 내용은 해마다 같은 꼴이다. 대부분 전년도에 예를 교본삼아 짜 맞추기를 하기 때문이다. 누가 죽고, 무슨 큰 사고가 났고,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식이다. 이는 사실 독자 또는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오로지 신문 제작자의 생각에 따른 것일 뿐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12월 한 달을 달궜다. 검찰은 제공자의 실토를 통해 심증이 간다며 기소했으나 정작 본인은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강력 부인하며 정치적 사건으로 치부하려 든다. 각 신문은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라”면서도 은근히 혐의자의

신문시평



최병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편을 들었다. “한명숙 수사 속전속결로 불필요한 논란 잠재워야”(중앙 12/19 사설), “비리의혹 수사를 정치화 말라”(동아 12/16 사설), “빨리 ‘법원의 판단’에 넘기자”(한겨레 12/17 사설), “한전 총리 수사로 시험대 선 검찰”(경향 12/17 사설)이라며 원초적인 기사로 일관했다. 한전 총리가 돈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더딜까보아 더 큰 걱정이다.

“총리공관서 있었던 이상한 오찬”(조선 12/21 사설)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낸 것은 단 1건이었다. 어느 신문에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는 게 이상하

다. 추리를 해서라도 진실에 접근하고 확실성을 유도해내야 한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다. 그간 우리의 정치인들이 한번이라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 보았는가 말이다. 하나같이 나중에 확증을 들이대면 그제야 아랫사람 핑계나 사무처리 착오였다며 고개를 숙이지 않던가 말이다.

연말이 다가오면 신문의 단골메뉴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00인 상’이다. 각 대학별로, 고등학교별로, 직종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두가 자랑스러운 출신들을 초청해 상패와 상품을 주고 신문지면에 게재를 의뢰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어느 신문이나 사진과 함께 반드시 게재해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진의 얼굴을 보면 관계, 정계, 학계의 현직이거나 체육계와 연예계의 인

기인들이다. 소시민은 큰 사고나 저질러야 한번 나올까 말까인 지상 소개가 그들에겐 한없이 푸짐하다. 이렇게 너그러운 신문도 매년 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자원봉사자의 얼굴을 실는 것은 본적이 없다. 남모르게 이웃을 도우며 나누어 쓰며 보살피는 1,000시간, 500시간의 자원봉사실적은, 소시민의 정성과 아름다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언론은 어떤 땐 썩 잘하다가도 자사(自社)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나오면 일그러진 모습을 보인다. 신문·방송 겸영문제 보도가 대표적인 예다. 조선 동아 중앙 등 메이저 신문들이 앞다투어 그 타당성을 역설했다. 특히 방송사인 MBC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과 대응은 실로 가관이었다. 중앙일보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230건의 기사를 실었다. 뒤통수를 때리기 위한 MBC민영화를 다룬 기사는 64건이나 된다. 물론 이에 대한 MBC측의 대응과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독자와 시청자는 이를 맞춘 술안줏감으로 삼았다.

‘할 말은 한다’는 캐치프레이즈의 경향신문과 ‘내일을 보는 오늘의 진실’이라고 내세우는 한겨레신문은 마치 민주당이나 민노당 당원인 것처럼 불법폭력을 옹호하고 미화까지 하는 일탈을 일삼았다.

내 편의 이익을 계산하느라 세계 앞에 ‘불법폭력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움을 감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09년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교수·지식인 216명은 지난해의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徑)’을 선정했다 한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해 셋길이나 굽은 길을 걷는다’는 뜻이란다. 혹 우리의 언론이 ‘방기곡경’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대신 오히려 부추기고 편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지난해 우리의 언론은 따뜻한 가슴도 모자랐고 차가운 머리도 부족했다.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쟁적인 사실보도가 아닌 심층 분석을 통한 진실보도로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필자]

9면에서 이어집니다.

김문수는 끝이 곧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옹호론이다. 정치적 쇼를 가장 증오한다는 것이 김문수론의 노른자위다. 이화장 방문 때 자신의 입기 중에 경기도내에 건국대통령 이승만 동상을 꼭 건립하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不滅의 동상 세워야

동상은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동상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을 엿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건국과 독립을 주도한 대통령의 동상이 없다는

것은 슬픈 코미디다. 대한민국 국호를 손수 짓고 임시정부 초대대통령과 건국대통령을 두루 거친 어른의 넋을 기리는 동상은 고사하고 반듯한 기념관도 없다는 게 말이 될법한 일인가 말이다. 여는 대통령은 재임시에도 자신의 이름 석자를 버젓이 내걸고 멋지고도 큼직한 상징물을 만들지 않았던가. 우리의 허물을 하늘에 고하고 목 놓아 울어야 한다.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한 세월을 보냈는가. 이렇고도 조국의 융성 발복(發福)을 기원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승만에게는 살아생전에 포원진

열망이 하나 있었다. 숙적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만은 직접 관장하고 싶어 했다. 하직하는 날 경무대(景武臺·오늘의 청와대) 어귀를 나오면서 측근에게 던진 목마른 한숨이다. “일본하고 친교 하는 일은 내가 직접 맡아 하고 싶었는데....” 문혔던 울화가 왈각 솟구치는 대목이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이승만 라인’을 만방에 선포했던 우람한 노(老) 대통령이었다.

2010년은 굴욕적인 한일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승만 동상건립의 적기가 아닌가.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눈이 멀면 마음도 멀다고 했다. 사통팔달 눈에

잘 띄는 자리여야 한다. 조선의 육조(六曹)거리 당신이 만든 광화문 네거리 한복판이다. 원래 있던 남산 기슭도 좋다. 청와대 길 입구는 어떤가. 시청 광장도 나쁘지 않다.

왓시왓비(曰是曰非) 할 핑계는 없을 것이다. 민초들의 속담 한마디로 글을 맺어련다. 속담일랑 수수만년을 이어온 백성들 삶의 지혜가 살아 숨 쉬는 경구다 “조상 무덤 등진 집안 장독대는 햇볕도 외면 한다.” 선진화를 국정기조(基調)로 삼은 MB가 목청 높인 국격론의 메아리가 식기 전에 ‘국격과 건국대통령’을 생각해 보았다. [필자]

소비자 告發프로 부작용 최소화 노력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럴때는 밤이 낮을 따라오는것 같이 어떠한 사람도 너를 속이지 않으리라”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필자가 이 말을 소개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 정치인들의 말들이 너무나 信賴를 잃어 도저히 믿을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는 그야말로 重千金이어야 할텐데도 말이다. “참나쁜 대통령이네요”, “대전은요?”로 함축되는 박근혜하나라당 전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含意가 깊게 느껴진다. 그렇기에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다. 많은 말을 쏟아 내기만 했을뿐 아무런 신뢰도 주지 못하는 요즘의 정치인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요즘 국회 주변이나 정가에서 들려오는 정치인들의 말들은 어떤가. “1원도 안 받았단다”에서부터 “참말로 出馬 안하는 거죠”처럼 덜 걸러진 말들이 국민이 듣는 “방송”에서 공공연히 膾炙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한명숙 전국무총리의 “1원도 안 받았단다”에 대해서는 “아, 그래 일국의 국무총리가 한푼도 안받았단다는게 사실이겠지”라는 게 아니고, “그래 달러로 받았으니까 1원도 안 받은게 맞네”라고 시니컬하게 비아냥대는 것이 우리네 주변 인심이 아니던가. 그게 바로 정치인들에 대한 시정배들의 소박한(?) 생각 곧 민심이란걸 과연 그들은 알기나 할까.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은 방송 인터뷰프로에 출연해 사회자에게 거꾸로 질문을 거듭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고, 그것도 여러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질문했다. 앞으로 거짓말 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국민에게 까지 약속 하라고 다그쳤다. 그는 지난12월10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에 출연해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거꾸로 손석희에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다는데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逆攻했다. 손석희가 “그건 誤報”라고 대답하자 홍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열심히 초빙하려는것 같다”고 재차 질문했고 손석희는 “제안 받은 바도 없다, 오보다”라고 거듭 부인 했다. 이에 홍은 “진짜 안나갈거냐, 국민들 앞에 맹세할수 있느냐”고 추궁하듯이 질문 했다.

이에 손은 “왜 자꾸 질문하느냐, 안나간다고 말씀드렸다”고 톤을 높이기 까지했다. 홍의원은 이에 “그럼 우리는 참 큰 부담을 덜었다. 국민 앞에 맹세했다. DJ처럼 翻覆하고 나가기 없기다”라고 끝을 맺었다. 출연자 홍준표가 사회자 손석희를 녹 아웃 시킨 꼴이 되고 만 것이다. 홍의원의 이날 질문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속아 왔는가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물론 판단은 듣는 이들의 몫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그런일이 이젠 없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진실되지 못했던 말 한마디로 사 랫하나 자살하게 만든 현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그들에게는 밥먹듯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凡常한 우리들에게는 엄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손석희의 답변이 거짓이 될지의 여부는 내년 초가 되면 밝혀 지게 될 터이지만 웬지 걱정이 되는 것은 필자의 과



방 송 시 평



신 대 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MBC의 “불만 제로”는 그 프로그램이 갖는 公益的인 목적 못지 않게 제작과정에서 私益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그런데 KBS의 “소비자고발”프로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PD두명이 검찰로부터 실형구형을 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다. 판결이 1월 7일로 예정돼 있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영돈등 두명의 PD에게 각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탤런트 김영애씨가 운영하는 화장품업체 (주)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의 일이었다.

두 PD는 2007년 10월 5일과 11월 9

믿을 수 없는 政治人말 보도 허탈 PD수첩 용기 있는 변신 아쉬워

민한 반응일까. 이어 국민들의 생활경제문제로 초점을 한번 옮겨 보자. 소비자 보호운동은 많은 소비자들을 악덕기업인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순기능에서 출발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랄프 네이더(Ralph Nader)對 GM자동차 케이스가 될 것이다.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 공부한 네이더는 1965년 32살 때 GM자동차의 콜베어자동차 안전 문제를 들고나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그는 Unsafe at any speed(어떤 속도에서도 불안전)라는 저서를 통해 GM을 고발했고 GM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네이더를 파멸시키려 했으나 그의 사생활을 침해한 GM의 비열한 행위가 공개됨에 따라 GM사의 사장이 상원 특별위원회에서 공개사과 하기도 했다.

네이더의 승리는 독과점 기업의 횡포에 시달려 왔던 소비자들이 기업의 독주를 경고하며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존의 소비자 운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불량제품이나 공해요인 등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고발형 소비자운동으로의 전환점이 되게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정부차원의 소비자 보호원이 있지만 이 기구가 국민으로 부터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소비자 고발프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부분이 많은 반면에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주간 단위 프로그램인 KBS의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과

일 두차례 방영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에서 참토원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철석이 황토의 고유 성분인데도 마치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것 처럼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고발은 11월 3주째 방송된 프로에서 가짜 횡성한우를 판매한다는 식당들을 고발했다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사과하기도 했다.

좀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MBC의 “불만제로”도 일부 업체로부터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따라 MBC내부에서도 PD수첩을 패러디해 불만수첩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한다.

지난 12월 16일 저녁 프레스센터에서는 의미있는 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언론인회가 지난 1년동안 주변에

널리 기릴만한 언론인들을 선정해 상을 주는 자리였다. 이자리에서 기록할만한 것은 현직 언론인이 아니면서 상을 받은 한 여성의 스토리다. 그의 이름은 정지민. 그녀는 지난해 우리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고 MB정부를 곤경으로 몰고 갔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번역자 였었다. 그녀는 불만이 있었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 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不義를 참지 못하고 일어난 용기를 높이산 대한언론인회로부터 특별상수상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인터뷰이의 답변내용을 제작진들이 歪曲해 보도의 방향을 바꾼것을 지적함으로써 MBC PD수첩이 물고온 온나라를 휩쓴 광풍을 잠재우는데 세운 공로를 기린 것이었다. 필자가 이점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상식에 앞선 지난 12월 8일 MBC PD수첩이 방송한 정규프로그램 때문이다.

MBC PD수첩은 8일 밤 11시 15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편에서 조직의 내부고발자문제를 심층취재 보도했다.

이프로에서 PD수첩은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10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국정씨 케이스와 인천공항 부실공사를 고발한 한 건축감리원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대가로 背信者라는 낙인이 찍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 했다. PD수첩은 이 프로를 제작함에 있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보여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정지민씨의 고발을 왜 외면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만약에 그들이 정지민씨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그들은 死生의 각오로 임하지 않음으로써 生即死의 길을 택했다는 점이다. 무릇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닌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임했더라면 그 동안의 불신을 떨쳐 내고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할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4]

김진현 회우 ‘세계평화지수’ 펴내



김진현(세계 평화포럼 이사장 · 한국 무역협회 연구자문위원장) 회우가 세계 평화포럼이 발간하는 아홉 번째 세계평화지수, ‘World Peace Index 2009’(조사대상 2008년, 종합 76개국대상, 정치 · 군사부문대상은 140개국)를 펴냈다. ‘WPI 2009’는 지난 10월 27 ~ 29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한국통계청과 OECD가 공동주최한 제3차 OECD World Forum에서 발표했다. [4]

블로그 운영 · 컴퓨터게임 즐기는 八旬

열정의 노후

“운영하는 블로그(blog)가 10개정도 된다. 역사적 사건이나, 세태에 대한 느낌, 가족이야기 등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한다. 저녁에는 컴퓨터 게임을 즐기거나 팝송을 듣고 심야에는 케이블TV에서 방영하는 액션영화나 야한 영화를 보다가 새벽 2~3시쯤 잠이 든다.”

전형적인 ‘저녁형인간’의 신세대 이야기가 아니다. 사이버 세상을 누비며 컴퓨터와 더불어 사는 ‘팔순의 熱血 청년’ 李淳紀 회우의 일상이다. 동영상 제작과 포토샵은 기본이다. 요즘은 4대에 걸쳐 찍어 놓은 사진들을 세대별로 CD에 담은 작업을 하고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나 마이클 잭슨의 ‘I just can't stop loving you’를 즐겨 듣는다는 그를 누가 팔순의 노인이라 하겠는가.

-컴퓨터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요.

“40년쯤 된다. 1970년 성곡문화재단 장학금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신문대학원에 유학하면서 대한일보 뉴욕특파원을 겸하게 되어 컴퓨터를 처음 접했다. 육필로 기사를 쓰던 시절 미국에서 컴퓨터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제 컴퓨터는 내 생활의 일부다.”

이 회우는 컴퓨터 뿐 아니라 영어는 물론 독어와 불어, 일본어 등 4개국 나라말에 능통하다. 미군부대 KLO(8240부대)에서 근무했고, 신문사 편집부장과 외신부장을 거쳐 한국해외개발공사 이란과 호주지사장을 거친 국제통이다. 본회 사이버위원회장과 이사를 맡아 기여했고, 역사문화탐방 등 행사에도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컴퓨터 게임은 혼자서 즐기시는지.

“대학생 손자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를 하면서 젊은이들의 의식을 알고 그들만의 언어소통과 사고방식을 알게되니 자연히 생각이 젊어진다. TV 자막처리가 빨라 처음엔 따라 읽지 못했으나 요즘은 쉽게 읽는다.”

-새벽에 잠이 들면 기상은 몇 시쯤인가.

“8시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은 우유와 커피로 간단하게 때우고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는 용마산이나 집 주변에서 가벼운 산책을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방을 운영하는 며느리가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 가끔 저녁끼니를 혼자 해결하기도 한다.”

80歲를 口語로는 여든 살, 文語로는 八旬, 별칭으로는 傘壽다. ‘우산 傘’자를 파자(破字)하면 ‘팔(八)+십(十)’이다. 孔子(BC 551~479)시절에는 수명이 짧다보니 耳順(60세)까지만 별칭을 붙여 놓았다. 그로부터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 唐나라 시인 杜甫(712~770)는 ‘曲江詩’에서 ‘人生七十古來稀’라며 “사람이 70까지 사는 것은 예부터 드물었다”고 읊었듯이 그 또한 70세를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은 傘壽 때 저승사자가 오면 “아직도 이 세상에 쓸모가 있으니 다음에 오시오” 한다는 우스개가 있듯이 사이버 세상을 遊泳하는 李淳紀 회우의 팔순은 숫자에 불과할 뿐임을 실감한다. 한해가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8>

회우초대석

李淳紀

인터뷰 글·사진 / 이규섭(본보 편집위원)



李淳紀 회우가 프레스센터 앞(옛 신문회관 앞뜰)에서 한국편집기자협회 창립총회 시절을 회고하며 포즈를 취했다.



1968년 9월 22일 미군부대 KLO(8240부대)에서 건너편 인민군



1999년 12월 9일 한(앞줄 가운데가 이순

40년전 美유학 시절 컴퓨터 배워... 이젠 ‘생각’ 6·25 참전용사... 신문편집 達人... ‘한국 편집

저무는 길목, 12월21일 대한언론인협회 사무실서 만났다. 평소 즐겨 쓰는 검정색 둥근 베레모처럼 성격도 둥글고 원만하다. “전형적인 외유내강에 극단적인 성격이 아니라 중도”라고 말한다.

-새해가 되면 “또 한 살 먹는구나” 하듯, 언제 “나도 늙어 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는지요?

“나이를 잊고 살아왔다. 만손자가 중학교에 입학 할 때 ‘나도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세대가 바뀌었음을 절감했다.”

걱정의 시대

李淳紀 회우는 1954년 한국일보 공채 1기로 언론계에 몸담았다. 외신부와 편집부 기자를 거쳐 1959년 조선일보 편집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63년 대한일보 편집부장, 1965년 중앙일보 편집부장으로 창간작업에 참여했고, 1968년 다시 대한일보 뉴욕특파원, 1973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겸 외신부장으로 언론계를 마감했다. 그 뒤 한국해외개발공사 호주 및 이란지사장과 조사연구실장을 끝으로 직장생활을 마무리했다.

-편집기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삽화는?

“1955년 한국일보 견습 율창이기자 시절이다. 그 해 7월은 극심한 가뭄에 땅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다. 비를 애타게 기다렸다. 야간편집 당번을 맡아 일기예보와 기상도를 넘겨받았다. 비가 온다는 예보다. ‘비는 곧 온다’라는 단정적인 제목을 뽑아 1면 톱으로 올렸다. 당시로는 파격이다. 율창이 기자가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과감한 모험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 2시에 퇴근하여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천둥이 치며 비가 내렸다. 그 때의 감격은 잊혀지지 않는다” 편집기자의 감각과 순발력, 배짱이 돋보인 모험으로 종합편집의 길을 튼 역사가 됐다. 그 뒤부터 통신사에서 일기예보 기사를 보내는 게기가 됐다는 것.

1956년, 이순기 기자는 새벽 2시 지프에 7~8명이 타고 퇴근하고 있었다. 소방차 사이렌이 한밤의 정적을 깨며 명동방향으로 달린다. 명동네거리 대형 냉면집 ‘고려정’이 화염에 휩싸였다. 그는 과출소로 뛰어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고려

정이 불타고 있어요. 운전기 세워요. 시내관 다시 만들어야해요” 신문사로 되돌아와 기사를 쓰고, 판을 다시 짜 생생한 현장 사진과 함께 특종을 날렸다. 열정이 넘치던 기자 초년시절의 또 다른 삽화다.

-의욕과 열정이 넘치다보면 실수도 따르기 마련인데...

“열정이 때로는 뒤통수를 치는 실수가 된다. 駐日공사 김용식이 일시귀국, 장기영 한국일보사주와 단독회견을 했다. 1면 톱으로 기사를 배정하고 인물 자료사진을 곁들여 신고 새벽에 퇴근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비서실장이 집으로 찾아와 깨워 사장실로 불러갔다. ‘이순기, 너 빨갱이 같은 놈 아니야’ 사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사연인즉 카이잘 수염의 주일공사 얼굴이 同名異人 댄스교사 얼굴로 바뀌어 나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특종이 역적으로 바뀐 일화다. 大統領이 ‘大統領’으로 바뀐 誤字로 한 신문사가 곤욕을 치른 뒤 大統領이 들어가는 활자는 붙여서 주조했던 시절도 있었다.

1956년 9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공관(현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그

나의 '늘 푸른 청춘'

국·중앙일보 편집부장
울신문 편집부국장
국편집기자협회 초대회장
외개발공사 조사연구실
·호주지사장

원·칼럼니스트)



대한언론인회 주관으로 실시된 휴전선 시찰에서 비무장
지대를 관찰하고 있는 이순기 회우. (왼쪽에서 두 번째)



국편집기자회 31차 총회에 참석한 역대 회장들.
기 회우)

활의 일부'로 기자회' 창설

는 2진으로 취재현장에 있었다. 장면 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 중 피한의 저격을 받았다. 왼쪽 손을 다치는 가벼운 상처였지만 '저격범 배후 인물에 경찰 수뇌부가 관련됐다'는 후속 보도로 치안국에 끌려가 곤욕을 치렀다. 1960년 쿠데타 군부성명과 함께 군사혁명을 부인하는 민주당 부당수 金度演의 성명을 나란히 대칭 시킨 편집으로 중앙정보부 安家로 끌려가 고초도 겪었다. 권력의 권위주의가 판치던 시절 이순기 회우가 겪었던 수난은 한국언론의 수난사이기도 하다.

-이 선배와 때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편집기자협회 발족의 산파역을 맡아 초대회장에 추대 된 것이다. 47년 전 편집기자단체를 결성한 동기는?

"1964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다. 한일회담반대로 학생들의 데모가 격렬해지자 서울시일원에 비상계엄령(6월3일)이 선포되면서 언론은 검열을 받았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국회에서 의결(8월2일)되어 언론의 숨통을 옥죄어 왔다. 그때 한국기자협회 결성이 급진전되고 있었다. 언론인들이 뿔뿔 뿜쳐야 할 판에 내근인

편집부 기자는 회원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그래서 별도로 편집기자협회 발족을 추진했다."

이 회우(대한일보 차장)가 간사를 맡았고 경향, 동아, 서울, 신아, 조선, 한국 등 7개 신문과 동양, 합동통신 등 2개의 통신사 차장들이 주축이 됐다. 정보기관의 방해공작을 피해 집에서 만나는 등 산고 끝에 자질향상, 권익옹호, 친목도모를 기치로 9월28일 신문회관(현 프레스센터) 앞뜰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간사를 맡았던 이 회우가 초대회장으로 선출돼 편집기자 발전의 초석이 됐다.

-요즘 신문의 변화속도가 무척 빠르다. 신문은 문자, 비디오, 오디오와 함께 어우러져 전자신문상태로 변하는 뉴미디어시대다. 편집 후배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시대가 변하고 언론환경이 바뀌어도 편집기자의 역할과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지속적인 자기개혁과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객관성이 요구되는 기사 제목에 주관적인 제목이 많다. 드라마나 개그를 패러디한 말장난에 가까운 제목들도 거슬린다. 기자는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낭만의 시대

-격동의 시절 신문쟁이의 낭만은 역시 '酒有天下' 아납니까?
"청계천변 노천에 쭈그리고 앉아 곱창구이를 안주로 상표도 없는 '김포특주' 카바이드 막걸리를 많이 마셨다. 용금옥이나 사직동 명월네 대폿집 등을 누비고 다니며 외상을 긋고, 장 기자(장기영 한국일보 사주를 그렇게 불렀다)앞으로 술값을 달아 놓기도 했다."

-요즘 주량은?
"이틀에 한 번, 소주 한 병이면 족하다."
-담배는?
"20년 전 손자가 할아버지 입에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해서 끊었다."

생사의 고비

-6·25참전 용사로 죽을 고비를 넘겼었지요?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1학년 때 한국전이 터졌다. 경기도 양평 옛골 외갓집에서 방공호를 파고 피신했다가 9·28 수복과 함께 귀가했다. 그 해 11월 징집영장을 받고 대구훈련소에서 1주일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투입됐다."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중공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소양호 부근에 구축해 놓았던 분대 진지가 적군의 포격을 맞아 전우 8명이 전사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 제천으로 후송되어 3일 만에 의식이 깨어났고, 밀양 7육군병원으로 후송됐다. "군의과와 간호장교, 밀양성당의 수녀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軍醫인식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 때부터 가톨릭 신자가 됐다고 한다.

-요즘 건강은?
"그 때 입은 골절과 탈골, 왼쪽 눈 각막과열 등 후유증이 있으나 혈압이나 당뇨는 없다. 6·25참전유공자로 보훈병원은 무료다. 병원비 걱정은 안해도 되니 다행이다."

金泰運의 술 이야기 ⑦



金泰運 회우

위스키의 매력 (上)

한창 마시고 돌아 다닐때, 삼삼오오, 명동에서 무교동, 무교동에서 명동으로 넘나 들었다.

서울의 명문, 술의 고장이 아닌가. 하루는 옆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최영해(崔映海·正晉社 사장)씨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들 술퍼먹는 모습을 한참 쳐다보다가 불쑥 이런말을 던졌다.
『자네들은 술을 거꾸로 마시고 있어?』

『자네들은 지금 막걸리, 소주 마시고 왔지? 이제 맥주 마셨으니까 저쪽으로 건너가면 위스키나 코냑 마시겠지. 그게 틀렸단 말일세. 집에 갈때쯤 길거리에서 토하게 되면 맨 나중에 마신 코냑, 위스키, 맥주순으로 나올 게 아니냐? 비싸고 좋은 술은 먼저 나와 버리고, 위속에 남은 것은 싸구려 막걸리 뿐이지..... 처음부터 좋은 술을 먹어. 그래야 그게 남지』

우리들은 모두 박장대소, 웃어댔다. 위스키의 어원(語源)은 원래 "생명(生命)의 물"이라는 뜻이다.

북방에서 스코틀랜드에 이주한 게일족의 우이시크 베하(Uisge beatha)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자료에는 적혀 있다. 그것이 여러 세기를 거치는 동안 "위스키"로 변해간 것이다.

위스키의 탄생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발전과정도 마찬가지다.

앞서도 언급했듯, 술은 "양조주"와 "증류주"로 구분되는데 양조주는 기원전 5천년전부터 인간사회에 파고들지 않았나 하는 사학자들의 견해다.

위스키로 대표되는 증류주.

그것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선두다툼으로 세상에 그 정체를 드러낸다.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대표,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대표 자기네가 만들어낸 지주(地酒)가 위스키의 본바닥이라고 우겨댔으니 위스키전쟁의 시초라 할까.

나그네 인생

이 순기 회우는 '인생은 나그네'라고 정의한다. 이 세상에 잠시소풍을 왔다가 떠나는 이승의 삶이 나그네와 다를바 없다는 것. 56년 전 결혼한 부인 元濟俊 여사가 2002년 소풍을 마치고 떠났다. 2005년엔 장남이 지병으로 그의 곁을 떠나 가슴에 행하니 바람이 스쳐가지만 운명 이러니 자위하며 나그네처럼 뚜벅뚜벅 걷는다고 한다. 차남 薰

1701년.

골프와 위스키의 명성을 지닌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국세에 몰려 합병된다.

양숙이던 두 나라가 합병된것은 여러 가지 변화를 크게 가져왔다.

잉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지방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세금(税金)을 부가하고 단속하기 시작했다. 깜짝놀란 스코틀랜드의 양조업자들은 위스키 밀조시대(密造時代)로 숨어 들어간 것이다.

밀조된 위스키는 오크통에 담겨지자마자 산속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밀조자와 세리들의 마찰은 끊길 사이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 위스키를 만들때는 소주처럼 빛깔이 백색이었는데, 산속 땅굴같은데 감추어 놓은지 몇 년후부터는 술빛이 호박색으로 변하면서 그 맛이 일품으로 변해갔다.

뿐만아니라, 산속에 감추어 놓을때 「언제 만든 술」이라는 연도를 표기(에이징)해 놓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세리의 눈을 피해, 5년도 가고 10년도 갔다.

세월이 감에 따라 술의 빛깔도 호박색으로, 향은 저 높은곳을 찔렀다.

"저장·숙성 연도"가 생겨나고 12년, 21년, 30년 저장 위스키까지 세상에 나오게 된것이다.

그래서 위스키에는 저장연도가 라벨에 새겨지게 되는데, 한가지 꼭 지켜지는게 있다. 술이 오크통에서 빠져나와 병이되는 순간, 그 술의 저장연도는 그것으로 끝난다. 12년 산이면 병이되는 순간 저장연도는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다.

위스키의 매력과 그 다양성은 끝가는데가 없다.

얼음 두서너덩어리 넣고 그위에 위스키를 따르고, 얼음과 위스키가 마주치는 마찰음을 들으며 한모금 두모금.... 목을 축일때 그맛을 세상 어디 비하랴. ☞

柱 씨와 딸 宰林 씨 등 3남매 사이에 태어난 손자들 4명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컴퓨터게임을 즐기며 사이버 세상에 빠져 늘 푸른 청춘으로 산다.

英韓大辭典, 經濟學大辭典 편찬위원으로 참여했고, 저서로는 '호메이니, 그는 누구인가' '미국이민 진출 확대와 투자환경' '中東 안내' 역저 '황야의 소년' 등 다수. 경제기획원장관표창, 한국편집기자협회 공로상 등 수상. ☞



한국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 송년회겸 언론상 시상, 합동 고회연 전경.



공로상 시상.



특별상 시상.



효부상 시상. (왼에는 수상자 권숙희씨)



조성국 회우에 감사패 전달.



김진섭 회우의 건배 제의.



홍원기 차기 회장 당선자 인사.

화합과 우의

대한 언론인회 송년회

2009년도 대한언론인회 송년모임이 12월 16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회 송년 모임 사상 처음으로 흥겨운 공연까지 곁들인 이날 송년회에서는 제 18회 대한언론상 시상과 고회를 맞은 52명 회우의 합동고회연도 함께 치러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해복, 신우식 고문, 제재형 명예회장과 윤익한, 전신병 감사 그리고 김도진, 문명호, 신동철, 이형균, 홍원기 부회장 등 임원진 전원과 원로 회우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대한언론인회 회보의 편집방향을 확실하게 정해 발행한 것이 재임 중의 큰 자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조 회장은 또 17대 회장이 예년과 달리 단일 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것도 대한언론인회 역사상 참으로 큰 변화라면서 12월 11일자로 마감된 차기 회장 선거에 단일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당선자가 된 홍원기 부회장을 소개해 모두의 박수를 받게 했다. 이어 문명호 대한언론상 심사위원장이 “올해 대한언론상은 본상 수상자 없이 일생을 정론직필로 언론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조용중 회우에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심사보고를 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MBC의 PD수첩 광우병 관련 제작진이 영문번역을 왜곡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고 올해 저서로 이 사실을 증언한 영문번역가 정지민씨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명호 위원장은 또 외병중인 서강화 회우를 수년째 극진히

간호하고 있는 만며느리 권숙희씨를 표창하자는 원로회우들의 추천을 받아들여 효부상을 수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창화 회장은 먼저 조용중 회우에게 공로상을 그리고 정지민씨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부상과 꽃다발이 전해졌다. 조용중 회우는 한국 언론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다 자신들은 언제나 옳다는 오만으로 신뢰성 추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언론인회가 현장의 언론인과 더불어 신문의 신뢰성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특별상 수상자 정지민씨는 “다만 진실을 밝히려는 아주 작은 마음에서 한 일을 이렇게 언론계 대 선배님들이 칭찬해 주시니 앞으로도 언제나 진실을 밝히려는 다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해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효부상은 이날 수상자가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원로회우인 오판룡 회우가 대신 수상했다. 효부상 수상자에게도 100만원의 부상이 수여됐다. 이어서 조창화 회장은 지난 11월 23일에 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립선 검사를 실시하는데 실무책임자로 힘쓴 한국전립선협회 송영용 사무국장과 공동으로 본회 사무처에 신형 데스크탑을 기증한 조성국 회우와 고이명영 회우의 딸 이지연씨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지연씨는 미국 여행 중이어서 조성국 회우가 대신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진 합동고회연은 먼저 대한언론인회가 고회를 맞은 회우들에게 20만원의 축의금과 “言論一路”란 글과 당사자의 이름을 전서체로 직접 써서 여주요



언론상 수상자와 본회 고문 및 회장단 기념 촬영.



고회를 맞은 회우들과 본회 고문 및 회장단 기념촬영.

축제 한마당

언론상시상 · 합동 고회연

에서 특별 제작한 자기 기념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고회를 맞은 52명의 회우를 대표해 이형균 부회장은 답례의 말을 통해 대한언론인회가 성대한 잔치를 마련해 줘 고맙다면서 고령화 사회가 된 요즘 “70살은 잔치를 할 일이 못된다”고 겸연쩍어 하기도 했는데 오래 사는 것이 일반화 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날 아침 인터넷에 소개된 나이 들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차례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곧 이어 회장의 소개로 단상에 오른 차기 회장 당선자 홍원기 부회장은 “미디어 융합 시대에 심각한 위기를 맞은 신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선배 회장들이 쌓아놓은 대한언론인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년회 공식 행사의 마지막에 본회 최고령 회우인 김진섭 회우가 단상에

올라 “대한언론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모두의 건강을 위한 건배” 제의에 참석 회우 전원이 가득 찬 잔을 들어 힘차게 건배를 외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이어 푸짐한 뷔페의 만찬으로 이어졌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공식 행사에 이어 7시에 시작된 뷔페식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장구, 가야금, 통소와 퓨전 목금으로 구성된 아리랑낭낭 4인조 국악연주단의 흥겨운 퓨전 국악이 회원들을 즐겁게 했다.

구성진 강원아리랑과 흥겨운 서도민요 뱃노래는 회우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고 목금과 장구, 통소 연주는 어깨춤을 절로 일게 해 회우들은 송년과 합동고회연을 뜻 깊게 하는 연주회라고 즐거워했다. [4]

글 · 오건환 상임이사
사진 · 최희조 편집위원

수상소감

조 용 중

조창화 회장으로로부터 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대뜸 우스개처럼 “여러사람을 가가대소하게 만들 생각 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럼 수상을 거부할 거냐고 하기에 “아니오. 영광스럽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을 거부한다면 이 영예에 대한 큰 실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상소감을 좀 해달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 오늘아침까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자리에, 이 상에 걸맞을만한 훌륭한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일본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깐 신문의 가정배달비중이 높은 일본신문사는 미국에 비해 경영위기를 덜 타고 있으나 가정배달이 열악한 미국신문은 훨씬 다급한 위기상황에 빠져있다는 요지의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신문도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정배달이 미국보다는 높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경영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영위기에 못지않게 세계

모든 나라가 신문의 신뢰성추락을 들어 저널리즘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변화까지 겹쳐서 저널리즘의 위기는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권력이 필요에 따라 흘러주는 진실의 아주 작은 부분을 진실의 전부라고 강변하면서 옳다고 우기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보도하고 말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언제나 옳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이나 어느 언론단체도 신뢰성추락을 우려하거나 그 대책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놓고 말하는 데를 볼 수가 없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은 그야말로 권력이 빠지는 오만과 자기도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언론인회가 현장의 언론인과 더불어 신문의 신뢰성회복을 위한 대책을 걱정하고 의논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회원 여러분이 큰 소원을 이루어 더욱 건승하시고 대한언론인회가 더욱 발전할 것을 바라면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4]



전립선협회 송영용 사무국장에게 감사패 전달.



고회 회우들에게 기념품 전달.



식후 흥겨운 공연.



고회 회우 대표 이형균 부회장의 인사.



언론상 심사 경위를 발표하는 문명호 부회장.

한국경제

성공을 부르는 습관



미국의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일본경제신문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파이낸셜타임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지구촌 경제를 이끌어 가는 나라에는
대표적인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직장인에겐 성공을 위한 조언을,
CEO에겐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을,
가장에겐 재테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범띠 회우

“호랑이 해 좋은 일만...”

새해 소망

새해는 경인(庚寅)년, 범띠해이다.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되는 백호(白虎)의 해라고 한다. 예부터 호랑이 태몽(胎夢)은 길몽(吉夢)중에서도 으뜸가는 꿈이라는 말이 있었다. 병인(丙寅·1926년)생으로 태어난 나도 어머니가 심상치 않은 태몽을 꾸고 나를 잉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신것을 기억하고 있다. 육갑(六甲-六十甲子)중 십이지(十二支)동물중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호랑이는 아시아대륙(일본을 제외하고)의 깊은 산속에 은거하는 으뜸가는 맹수이자 백수의 제왕으로서 잘생긴 동물이다. 단군신화때부터 곰(熊)과 함께 등장하는 호랑이는 산군(山君)이라는 별명도 있듯이 한국의 문화·역사·시화(詩畵)나 민화(民話)에 자주 등장하는 영물(靈物)이었다. 깊은 산속, 기암괴석을 끼고 앉아 있는 신령님과 함께 그려진 호랑이 그림은 민화(民畵)나 무속신앙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호랑이는 인간의 길흉 화복을 관

장하는 신선(神仙)의 사자로 재앙을 막아 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왔다.

육당 최남선은 중국의 용(龍), 인도의 코끼리, 이집트의 사자, 로마의 이리처럼 조선에서는 가장 신성한 동물의 첫째로 호랑이를 꼽았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선택한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호랑이는 특히 남성의 명예와 권세, 승리를 상징하는 영물로 전해졌다.

2010년 경인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운을 좌우하고 선진국으로 약진을 다짐하는 해이기 때문에 호랑이와 같은

1926년생



호 현 찬

- 전 KBS 심의위원
- 전 영화진흥공사 사장

눈을 크게 뜨고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호랑이 왕 꿈을 꾸어 보자.....

해마다 새해가 되면 꼭 떠오르는 당시(唐詩) 한편을 소개하면서 덕담으로 가름하기로 한다. 칠언고풍(七言古風)의 장시(長詩), 송지문(宋之問) 작으로 기록된 「유소사(有所思) 제목의 한시이다. 洛陽成東桃李花 飛來飛去落誰家로 시작

되는 이 시는(일명 白頭吟·白頭翁詠) 늙음을 슬퍼하고 인생의 무상을 한탄하면서 청춘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이 시중의 백미 명구로 알려진 구절은 다음과 같다.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

(해마다 해마다 꽃은 다시 피며 그 모양 비슷하지만, 해마다 해마다 사람들의 얼굴은 같지 않구나...)

그 다음구는 젊은이에게 한마디 이르노니 반생을 넘은 이 백두노인을 가련타 하여라...마치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듯한 시여서 감회가 깊다.

연연세세의 14자 구절은 원래 유정지(劉定支)라는 시인의 시로서 송지문이 감동하여 이 구절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간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하인에게 명하여 유정지를 죽였다는 전설이 있는 대목이다. 시 구절 14자 때문에 친구를 해한 당(唐)대의 시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당시(唐詩)의 명성이 높은가 싶다.

(1963년 乙酉文化史 刊 崔仁旭 譯의 古文眞寶에서 참조) [4]

경인년, 호랑이해의 새 아침이 밝았다. 특히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오는 백호랑이해로 올해에 태어나는 사람은 더욱 용맹한 기상과 강인한 의지를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필자도 무인생 호랑이띠이지만 솔직히 범띠이기 때문에 올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 다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경인년을 맞았지만, 전직 언론인으로서 남다른 감회와 바람이 없을 수 없다.

지난해는 이른바 좌파정권이 우파정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과 혼란이 계속된 한해였다. 이럴 때 과연 우리 언론이 언론 본연의 자세로 진실을 전달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혼란을 더욱 부채질 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광우병파동과 촛불집회 그리고 뒤따라 이어진 좌파들의 정치투쟁에 언론이 한 몫을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 언론인들이 자기들의 이념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언론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언론인 행세를 하면서 본연의 자세에 어긋나게 좌우대립에 끼어든다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이런 사람은 차라

1938년생



박 응 철

- 본회 복지 후생위원장
- 전 KBS 대전총국장
- 전 아리랑 TV 감사

리 언론계를 떠나서 떳떳하게 정치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또 한가지 모든 것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한다. 우리 언론도 독립투사, 민주투사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언론사도 주식회사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지나치게 자사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언론 본연의 자세를 잃어가고 있는것 같다.

새해에는 우리 언론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상업적인 이윤 추구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월은 참으로 빠른것같다. “가는 것이 모두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흘러 쉬는 일이 없구나” 이것은 옛날 공자가 냇가에 앉아서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탄탄명언으로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을 탓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고 일정기간 살다가 죽는 것이 자연의 섭리일진대, 모든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닌가 한다. [4]

지금부터 60년 전의 경인년(庚寅年)은 한국전쟁이라고 불려지는 6·25가 발발한 해이다. 내가 6·25동으로 태어났으니까, 올해는 내 나이가 소위 한 갑자를 돌아오는 회갑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요즘은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회갑의 나이는 아직 청년이라고 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청년노인이라고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은 60성상은 충분한 인생의 경험과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스란히 젊은 시절의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늙은 시절의 시간이 늘어난 것일 뿐이다.

경인년을 맞으면서 국가적으로 바라는 일과 개인적으로 바라는 일이 있다. 먼저 국가적으로 바라는 일은 무엇보다도 남북 전쟁이 일어난 해에 반대로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이정표 하나쯤을

남북정부 당국자 간에 이루었으면 한다. 예컨대 불가침협정이나 평화협정의 채택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분명 미래의 통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의 바탕에는 한 민족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서로 다른 것,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수용태세가 필요하다.

남북한은 이제 서로 한민족이라는 같다는 것에 기초해서 만나다가 항상 실망과 물이해로 돌아서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1950년생



박 정 진

-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 한양대 겸임교수

이해가 필요하다.

남북한은 이제 한 민족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 너무 많은 세대이다. 분단의 세월이 얼마인가. 이제 서로 다른 집에서 자라고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부부처럼 상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적으로는 회갑잔치는 이제 하지 않는 게 통념이니 회갑을 빙자한 소박한 출판 기념회를 가지고 싶다.

지난 해 백 권의 책 ‘한강교향시’(신

세림刊)를 냈을 때 주위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있다. 그 때 올해를 위해서 실은 미루어두었다.

회갑기념 및 출판기념회에서 내가 그동안 신세를 지고 동고동락한 지우들을 한 곳에 모셔두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좋은 삶든 나의 인생은 그들이 함께 수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없다면 나는 없다.”

출판기념회는 내 인생의 중간점검, 중간결산이 될 것이다. 그 중간 반환점을 돌아서면 나는 또 다른 인생을 향하여 마라톤을 시작할 꿈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1백여 권의 책을 썼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잊혀진 것도 있고, 발행이 중단된 것도 있다.

그것 가운데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다시 간추리고 정리하여 새롭게 포장하는 일도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4]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이 후락실장이 지난 10월 31일 타계했다. 내가 이 후락 정보부장을 도와 매스컴의 표현처럼 '정보부장'이란 직함을 쓰지 않고 실장이라고 쓴 것은 그가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일 때 한국일보 정치부 최고회의 출입기자로, 그 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는 중앙일보 정치부 청와대출입기자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부장'보다는 나에게 '실장'이란 단어가 훨씬 익숙하고 친근감을 준다. 이 실장은 울산출신으로 1946년 군사영어학교 제1기생으로 장교로 임관한 뒤 1961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그는 당시 4·19학생혁명으로 장면정권이 집권하자 장 총리의 부름을 받고 국가안보문제를 총괄하는 한국형 중앙정보부 창설준비를 진두지휘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5·16군사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한때 반혁명세력으로 몰려 구금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박 정희 최고회의의장과 군사혁명의 제2인자인 김 종필 정보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고회의의 공보실장으로 혁명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공보실장으로서 이 실장의 권력서열은 61번. 타고 다니는 지프의 차량번호가 바로 권력서열이었다. 혁명주체세력인 길 재호, 홍 종철, 김 형욱, 이 석재 등은 당시 육군 중령으로, 오 치성, 이 광선대령 등 최고위원들의 권력서열은 이 실장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육군소장출신과 육군 영관급 혁명주체 들. 때문에 이 실장은 최고회의 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부하였던 이들 최고위원실을 직접 찾아가 회의내용을 취재, 그 내용을 취사선택해서 매일 기자들에게 한 차례씩 브리핑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장은 그의 의전상 서열과는 관계없이 권력서열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실장이 최고위원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공보실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실장이 기자들과 회견이나 대화중이라는 핑계가 있긴 했지만----. 혁명초기와 비교하면 이 실장의 입지는 놀라울 정도의 변화가 온 것 이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이 실장이 천부적으로 지닌 고도의 지략과 무서운 순발력, 그리고 탁월한 정보감각 때문이었다. 그가 타계한 후 일부 매스컴에서 평한 것처럼 그는 삼국지의 조조와 제갈량을 합쳐 놓은 '제갈조조'라고 해도 과분한 표현이 아닌 분이었다. 혁명초기 권력서열 61번에서 그 후 박 정희대통령에 이어 제2인자로 도약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실장에 대한 평가는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더 부각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인식

故 이후락 실장을 생각한다

추모기



이 태 교

- 본회 회우
- 서울 부동산 포럼 회장
-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의 차이 등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후일을 위하여 내가 보고 느낀 인간 이 후락의 면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글이 군맹평상(群盲評像)격이 되어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라도 글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기로 했다.

첫째 내가본 이 실장은 여론수렴에 탁견을 가진 분이었다. 당시 혁명정부는 산적한 국정현황 때문에 국민여론에 대단히 민감했다. 그 중에도 군정연장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고심이 보통이 아니었다.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보안사 등 모든 정보기관이 경쟁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 정리해서 박 정희 최고회의 의장에게 정보보고를 올렸다. 당시 이 실장은 여론수렴을 위해 굵직한 국정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회의 출입기자실을 활용했다. 기자실에 토론논제로 올려 기자들끼리 토론을 벌이도록 했다. 이 문제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이 실장이 사회를 보는 형식을 취하면서 “군정연장을 하면 어떻게?” “민정복귀를 하면 어떻게 되나?” 등 굵직한 현안문제를 토론논제로 상정했었다. 토론과정에서 기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찬반토론이 격해져서 기자들 끼리 육박전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토론을 하고 나면 이 실장은 “나도 장사를 해야지”하면서 기자들을 자기 방에서 내보내고 토론내용에서 나온 결론에서 현황, 문제점, 대책 등으로 정리해서 이를 즉시 박 정희의장에게 보고했다. 정보기관보고가 최종책임자에게 보고되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동안 수정, 보완되기 때문에 국가원수에게 최종보고 될 때는 이미 신선한 맛을 잃은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실장이 만든 보고서는 기자들의 현장여론이기 때문에 현장감과 신선감이 있었다. 당시 최고회의 기자실에는 전국 유력일간지의 민완기자들 60여명이 몰려와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때문에 기자실은 사실상 국민여론의 대변실 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정희의장은 어느 정보보고서보다 이 실장의 보고를 신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의 위치는 나날이 무게를 더해갔다.

둘째 그는 탁월한 스피치 라이터요 홍보전문가였다. 국정전반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데다 국민여론을 리드하는 지략을 가진 분이라 간결하면서도 국민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용어나 문장으로 국가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 당시 공

보실에는 육군소령 2명의 스피치 라이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실장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최고회의 의장의 연설문을 실무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실무자들을 직접 불러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연설문을 구술해서 작성했다. 어느 날 내가 우연히 이 실장의 구술현장에 함께 했는데 그의 솜씨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무런 메모도 없이 연설문 전체를 책 읽듯 처음부터 끝까지 구술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실무자는 구술내용을 그대로 적어 연설문을 이 실장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는 역사적 어록이 될 만한 많은 용어를 창조해냈다. 평소에 급하게 말을 할 때에 말을 약간 더듬는 이 실장은 그가 전매특허로 사용해서 유명했던 용어 “고무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고---고무적이다”라고 더듬기도 했다.

셋째 인간적으로 자상하고 다정한 분이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었다. 이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69년 어느 날이었다. 당시 나는 중앙일보 청와대 출입 기자를 그만 두고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그날 나는 친구들과 광화문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세종문화회관 앞길을 걷고 있었다. 옆 차도에서 갑자기 검은 세단이 내 옆에 급정거했다. 차 앞자리에서 이 장우실장(비서실장 비서, 수협회장)이 내리더니 나에게 달려왔다. 무조건 차에 타라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뒷좌석에는 이 후락실장이 앉아있었다. 이 실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선일보까지 가는 불과 몇 분 사이에 안부를 묻고는 지갑에서 수표 두 장을 꺼내 주면서 용돈에 보태 쓰라고 했다. 지금의 화폐단위로 계산하면 약 2백만 원 정도. 당시로는 큰돈이었다. 그리고는 나를 내려주고 손살같이 사라졌다.

그 바쁜 분이 길에서 나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것, 청와대를 떠난 지 오래된 나에게 촌지를 챙겨주는 인간

미. 오래 오래 기억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는 한번 인연을 맺은 한 사람 한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말 자상한 분이었다.

넷째 그는 직무와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신상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었다. 출입기자들의 신원은 거울 알 처럼 꿰고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분은 내가 학창시절에 토론과 대중연설에 제법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최전방 지포리에서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전역하기로 한 전날 밤 1963년 8월 29일. 나는 이 실장이 평소 비밀아지트로 사용하던 반도호텔 803호실(?)로 호출되었다. 거기에서 이 실장은 나에게 박 정희의장의 역사적인 전역사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연설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 놀랐다. 기자인 나를 이렇게 까지 믿고 알아주는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고 장충동 최고회의 의장 공관으로 가서 박의장께 연설에 관한 조언을 해주라는 주문이었다. 공관에서 이 실장은 나를 박의장에게 소개하고 나를 동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날 밤, 사석에서 본 박의장은 너무나 소탈하고 인간적이었다. 아무리 잘 봐주어도 10년 정도는 세월이 흐른 것 같은 낡은 화섬바지, 시골농부들이 농사철에나 입음직한 남방셔츠에 왕골 슬리퍼를 신은 박 의장은 너무나 소박하고 인간적인 친근감을 지닌 분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의 광채가 번뜩이는 눈매, 푸른 빛깔이 감도는 면도자국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박의장은 평생 몸담았던 군 생활을 마감하는 전야라 만감이 교차하는 듯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라는 이 실장의 조언을 뒤로하고 모처럼 후배를 만났으니(대구 사범학교와 경북사대부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제의했다. 그로부터 술자리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공화당 창당구상, 경제개발청사진, 새마을 운동 등 국가경연에 대한 장기비전과 확고한 통치철학, 그날 밤 박 정희대통령의 발언과 신념에 찬 모습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의 뇌리에 그대로 각인되어있다. 여기에 제갈조조로 평가받은 이 실장, 두 어른과 함께 보낸 몇 시간은 나에게 영원히 잊을 수없는 귀중한 순간이었다. 우리현대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박 정희대통령과 그를 지근에서 장기간 보필했던 이 실장, 두 어른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4]

▶ 바로 잡습니다

본보 285호(2009년 12월호) 14면 4번째단 본문기사중 ‘공화당으로 趙世衡(한국일보)’을 ‘민주당으로 趙世衡(한국일보)’으로, ‘趙匡鉉(大韓通信)’을 ‘曹匡鉉(大韓通信)’으로 바로 잡습니다.

隨想 - 살며 생각하며

어느 날 갑자기

시골 중학교 출신들이 망년회를 하던 날이었다. 양재동에 새로 지은 멋진 건물에서 어릴 적 고향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마냥 떠들고 신명이 났었다. 잠깐이었지만 함박 눈까지 내려 우리의 만남을 축하했었다.

30여명의 옛 동무들이 만난 건물은 사무실도 있지만 식당가가 멋지고 음식이 좋아 결혼식도 열리고 각종 모임으로도 인기가 있는 새로 지은 지 1년 남짓 된 훌륭한 복합건물이다.

낮 12시 반에 모임이 시작됐고 회장과 총무님의 인사말에 이어 담소와 뷔페식 식사가 무르익기 시작한 1시 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다. 정전이였다.

급히 등장한 촛불에 의지하며 엉금 엉금 식사를 때우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그럭저럭 모임을 이어 갔다. 진행자의 멘트는 자주 꼬였고 전기로 데우던 음식은 식어서 제 맛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두운 가운데 음식을 고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마음씨 고운 시골 중학교 출신인 우리들은 그냥 만남을 즐기며 희희낙락이었다.

정전은 잠시 일터이고 곧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전 상황은 김센 모임이 적당히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충 인사를 챙기고 이대로는 아쉬

우니 2차를 가자는 몇몇이 어울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좀더 자세히 둘러보니 불 꺼진 비상안내 표지판도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

허둥지둥 안내를 받아야 했으며 화장실에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식당 안은 여전히 컴컴했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려는 손님과 회계담당 직원은 카드 단말기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다. 시골서 승용차를 몰고 온 친구들은 주차 타워에서 차를 빼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었다.

빌딩 하나의 정전이 이런 상황을 연출한다면 대도시에 전기가 나간다면 대단위 고층 아파트라면 어떤 사태가



호 천 응

· 본보 편집위원
· 수필가

벌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 여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날 밤 9시 뉴스에서 “타워형 주차장 정전, 50여대 고립”이란 타이틀의 뉴스를 시청할 수 있었다. 늦게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기자가 황급히 취

재한 내용은 반 토막일 수밖에 없었다. MC멘트는 이랬다. “도심 주차타워에 난데없이 전기가 끊겼습니다. 차를 못 뺀 사람들, 5시간 가까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000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아이템에 등장하고 인터뷰한 사람들은 시골 중학교 동창생들이었다.

2차 모임마저 끝내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높이 솟은 고층 아파트와 즐비한 빌딩 숲을 보면서 어느 날 갑

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무서울 까하는 두려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공사를 하다가 전기선을 건드려 생길 수도 있을 테고 폭우나 강풍 등의 자연 재해로 생길 수도 있을 테고, 어디 전기뿐인가 물도 불도 모두가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무심하게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테러라도 발생한다면...

그날 밤 재앙은 정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바다에 잠기고 있는 섬나라 투발루나 빙하가 녹아드는 남극처럼 서서히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의 나는 온통 물에 잠긴 도시를 헤매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물에 찬 지하 차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꿈속의 나는 뜬금없이 뉴욕의 한 광장에 몰린 인파에 섞여 있었다. 그곳에서 지구의 종말을 알린다는 TV 생중계를 지켜보며 통화가 되지 않는 누구에게간 간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걸고 있었다.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한장의 사진 윤보선-박순천 대표와 기념촬영

박정희 공화당 정권이 1964년 한일 회담 3월 타결, 4월 한일국교정상화 조약조인, 5월 조약 비준 방침을 밝히자 민정·민주 등 야당들은 즉각 ‘대일 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순회 유세 등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어서 이 ‘대일 굴욕외교 반대’ 유세에는 많은 청중이 몰려들었고 대학생들은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시위를 벌이게 되자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소위 6·3 사태로 까지 번졌다. 이때 이명박 고려대 총학생 회장 등이 반대시위 주동자로 구속되었다.

반대 투쟁 초기때까지만 해도 야당인 민정당(대표 윤보선)과 민주당(대표 박순천)은 한일굴욕외교에 반대한다는 큰 틀에는 서로 당론이 일치해서 전국순회유세에 함께 당력을 기울였으며 당의 거물급 인사를 연사로 내세웠다. 이때 각 언론사들은 국회출입기자 중 야당출입기자들을 지방유세에 따라 붙게 하고 그 유세기사는 1면 톱 등 비중있게 취급되었다.

사진은 1964년 4월 지방대도시에서 유세를 마치고 야당 당수들과 취재기자들이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뒷줄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김용태 조선일보 기자, 조광현 TBC 기자, 김성용 민주당 전국구의원, 윤보선 민정당 대표, 윤기대 윤대표 비서실장, 박순천 민주당 대표, 김승목 박대표 비서실장, 윤제술 민정당 소속 국회의

원, 양준용 경향신문 기자, 김수한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대변인, 박기병 대한통신기자, 정현순 동양통신 기자, 김성배 대한일보 기자.

〈사진제공=박기병·김성배 회우〉

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성준 회우 취임



이성준 회우가 올해 새로 발족한 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돼 1일 취임했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이성준 회우를 지난해 12월 23일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언론 진흥 기관이다.

이성준 이사장은 한국일보 편집국장 겸 부사장, 관훈클럽 총무, 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고 이사장 취임 직전까지 대통령언론문화특별보좌관으로 일해 왔다.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후원합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LG는 그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봅니다

두 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두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아이들 -

LG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남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키워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를 시작합니다

카이스트의 체계적인 과학교육과
한국외국어대학의 이중언어교육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로 커나가도록 돕겠습니다

다른 모습 같은 사랑, LG가 함께합니다

LG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LG



중국의 역사 왜곡과 날조가 끈질기다. 동북공정·서남공정·단대공정·탐원공정 등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고대사 정비작업은 중화제국주의의 현대화라는 주변국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다. 예나 이제나 중국의 사가들이 역사를 기술하는 데에는 몇 가지 불변의 원칙이 있다.

첫째, 모든 것을 중국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하(夏)·상(商:殷)·주(周) 이후 청(淸)까지 중국 역사에는 수백 개의 나라가 생겨났다 망했지만 이른바 중원(中原)을 차지한 나라만이 문화대국 중화(中華)요, 주변의 모든 나라는 보잘것없는 오랑캐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오만한 중화사상 때문이다. 중원이란 현재 중국 영토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황하 유역의 비좁은 지역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방의 민족과 국가들에 대해서는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라고 부르며 오랑캐 취급을 했던 것이다.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역사 정비공정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를 비롯, 흉노 돌궐 토번 등 주변 여러 나라가 모두 ‘중국 변방의 지방정권’이었으며, 따라서 그 역사도 모두 중국사의 일부라고 강변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국문명의 시원을 밝힌다는 탐원공정은 고조선의 발해만 요하문명이 황하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발해만 요하문명과 황하문명이 합쳐서 중국문명을 이루었다고 억지주장을 펴기 위함이다. 옛날에는 오랑캐로 무시하고 천대하던 주변의 역사를 자기 나라 역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동이는 중원의 동쪽에 있던 고조선과 부여, 그리고 고구려와 말갈 등을 가리킨 비칭(卑稱)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고조선과 부여와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의 수많은 하루살이 제국을 대국이나 상국으로 대접하고, 종주국으로 받들었는가 하면 전혀 아니었다. 우리 선조들도 똑같이 중국인들을 서개, 즉 서쪽 오랑캐라고 불렀다.

둘째, 중국의 치욕적 사실은 최대한 숨기는 것이다. 이른바 춘추필법(春秋筆法)이란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 한 수 당 등 중원을 차지했던 나라가 당한 수 치스러운 역사, 특히 주변의 ‘오랑캐’들과 싸워서 패배한 기록은 한사코 감추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했다.

제1차 고당전쟁(高唐戰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세민(李世民)이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하여 거의 반년이나 공격해도 함락시키지 못한 안시성에서 패퇴한 사실을 두고서도 ‘겨울이 일찍 오고, 군량이 부족할까 걱정되어’ 철수한 것으로 왜곡했다. 그래서 중국의 사서와 중국인의 역사가관이 황당무계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철수도 회군도 아닌 치욕적인 패주에 불과했다.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정예군을 휘몰아 반격하자 목숨이 위태로워 황망히 달아난 것이었다.

이세민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위급한 판국에 무슨 여유가 있다고 안시

中華帝國 노리는 中 歷史工程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성 밑에서 군사들로 퍼레이드를 벌이고, 성주 양만춘(楊萬春)에게 성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면서 상을 주었다 말인가! 그런 까닭에 중국의 사서들을 아무리 눈을 찢고 찾아보아도 양만춘이란 이름 석 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5천 년 중국 역사에서 으뜸가는 성군(聖

君)으로 추앙하는 이세민에게 치욕적 참패를 안긴 ‘오랑캐 장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중국의 사서에 이름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도 양만춘 이름 석 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양만춘의 이름만이 아니다. 고 당전쟁에서 수만 명의 수군과 수백 척의 전함을 잃은 해전의 참패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많은 당수군 장수에게 패전 책임을 물어 처형한 사실로 여실히 반증된다.

중국이 이처럼 역사공정을 통해 고대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탈취하려는 이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을 예방하기 위함인 듯하다. 중국이 고대사 왜곡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결국 소수민족들의 봉기로 중국이 다시 춘추전국시대나 5호16

국시대처럼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재의 중국 영토에 있었던 나라가 모두 중국의 지방정권이고, 그 역사가 모두 중국사의 일부분이란 중국 사학자들의 궤변은 역사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준 이하의 망발에 불과하다.

고구려만 두고 보자. 과연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던 지방정권’이었던가. 고구려는 BC 37년 건국부터 668년 망국까지 28왕 705년을 유지했다. 그 동안 중국 땅에는 후한부터 당까지 무려 33개의 이른바 ‘황제국’이 있었는데, 200년 이상 지탱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 가장 오래 간 나라가 196년을 유지한 후한이요, 그 다음이 103년인 동진이다. 황제가 1명뿐인 남북조시대의 동위나, 겨우 7년 만에 망한 후량 같은 하루살이 제국도 수두룩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영웅호걸이 등장했다는 삼국시대도 위 오 촉 3국의 임금이 모두 11명에 60년밖에 가지 못했다. 또 신라의 힘을 빌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도 20대 290년을 이어갔을 뿐이다. 또 동진 이후 중국을 재통일하고 고구려를 치다가 망한 수나라는 겨우 3대 38년 만에 망했다.

고구려가 ‘속국’으로 있던 705년 동안 중국에선 33개 나라의 흥망이 무상했으니,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본국’이 어찌 있단 말인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현대판 중화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 중국의 끊임없는 역사왜곡과 날조에 맞서는 길은 오로지 우리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역사교육을 후퇴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여전히 벌이고 있으니 보면 볼수록 한심하기 그지없다. [4]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청와대출입 4년 6개월만에 도쿄(東京)특파원으로 가게 됐다. 장기봉 사장은 그의 처남인 안종석 도쿄특파원과 맞바꾸겠다는 것이었다.

4년 6개월 너무 오래했다. 그동안 언행에 무척 조심했으나 동료들과 편집국장마저도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해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출입처인 청와대에서 신문사로 돌아오면 맨 먼저 2층 사장실로 올라가서 그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일과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으니 정말 마음이 홀가분한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청와대 신관 뜰에서 박대통령과 마주쳤다. 경호실 간부 식당에서 점심 대접을 받고 본관 집무실로 올라가는 도중이었던 모양이었다. 대통령은 나를 보자 다가와서 “정기자 일본으로 가게 됐다며, 가기 전에 내방으로 한번 올라 오시오. 그래 언제 떠나는거요”

“3월 초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대통령은 등을 돌려 집무실로 걸음을 재촉했다. 수행하던 박종규 경호실장도 덩달아 “떠나기 전에 내방에도 한번 들르시오” 하는 것이었다. 떠나기까지 도일준비로 매우 분주했다.

김성진 대변인에게 말하면 기꺼이 대

통령면접일정을 잡아 주겠지만 번거롭고 해서 대통령집무실에도 경호실장실에도 가지않았다. 도일을 앞두고 어느날 오후 늦게 김성진 대변인에게서 집으로 전화가 왔다.

각하께서 송별연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니 30분내로 청와대로 오라는 것이었다. “나 30분 안에 못 갑니다. 세수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시간안에 갑니까”

부아가 났다. 대변인은 되도록 빨리 오라고 뒤로 물러섰다. 택시를 잡아타자 기사가 행선지를 묻기에 “청와대로 갑시다” 하니 백미러로 나를 힐끗 훑쳐보았다. 대변인실에는 김윤환, 송정대, 권숙정이 먼저 와 있었다.

네 사람이 거의 동시에 출입처가 바뀌었던 것이다. 다섯시 반쯤 되었을까, 본관 대통령 전용 식당으로 올라갔다. 송별만찬이라지만 생선 매운탕에 몇가지 안주, 술은 일동 막걸리였다.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종군기자

“내가 마신다니깐 특별히 담가서 빚은 모양이야. 오늘도 경호관들이 가서 받아왔는데 내가 먼저 술 맛을 봐야지”

반쯤 잔에 따라 맛을 보더니 “음-괜찮아”

그리고는 술잔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각하 전 술이 약합니다” “자네가 잘 알아 마시게” 술잔 가득히 부어졌다. 그러나 잔은 그대로 둔채

였다.

그러던 권숙정이 갑자기 “각하! 각하께서는 통일이 된 뒤에도 집권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청와대 출입기자라지만 어찌 이런 말을 스스로 없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술 기운이 확 가셨다.

이윽고 대통령이 “정기자 일본엔 꼭 가야겠소” 이말에 내까지 헤롱헤롱서는 안되겠다 싶어 “각하 이미 신문사에서 발령이 났으니 이를 따라야 겠고, 일본엔 제 서모가 일본사람인데 그 밑에서

차 대통령과의 송별만찬

동생이 셋이나 됩니다” 정중히 말씀 드렸더니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각하 한가지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신아일보가 말이 아닙니다. 사세가 기울어져서 희망이 없습니다. 신아일보를 살려주십시오”

“신아일보 살리기야 간단하지, 알겠네”

이 한마디에 나는 고무됐다. 쥐꼬리만한 월급도 나오는둥 마는둥 고생하는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송별회가 끝나고 작별인사를 올리자 대통령은 내 손을 지긋이 잡고 “떠나기전에 내방에 한번 들르시오”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말은 두 번째인데.... 떠나기 전에 집무실을 찾지 않았다.

대변인실에 내려오니 네 사람에게 전별금 봉투가 마련되어 있었다.

집에서 열어보니 “정준모 기자 건승과 건투를 빕니다. 박정희” 백지에 쓰여 있었다. 그리고 미화 2천불과 자기앞 수표 20만원이 들어있었다. 45년전 당시로서는 꽤 많은 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장실로 올라가서 청와대에서의 낭보를 알렸다. 좀 있으면 청와대에서 무슨 연락이 올거라고 했다. 장사장은 만면에 웃음이 퍼지는 같았다. [4]

언론계 진보-보수 주제 세미나



★강승훈(서울언론인클럽 회장) 회우 = 11월 말 전남 신안군 중도에서 '언론계의 진보, 보수 대결 경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남시욱 회우가 했고 사회는 박실 회우가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는 김두근, 김화, 맹태균, 배병휴, 송두빈, 여영무, 오전식, 임판호, 정성진, 정운중, 제재형, 지용우, 천상기 회우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의를 벌였다.

동아일보 東友會長으로 선임



★김광희(전 동아일보 이사) 회우 = 작년 12월 15일 동아일보 전직 사우들 모임인 동우회 정기총회 및 연말 송년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임.

KBS사우회 송년회 개최



★김수웅(KBS사우회장) 회우 = 12월 17일 오후 6시 KBS 본관 지하 식당에서 신입 KBS 김인규 사장, 김은구 전 사우회장, 조창화 본회 회장 등 30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한국박물관 100년' 포럼



★남시욱(광화문문화포럼 회장) 회우 = 12월 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초청해 '한국 박물관 100년의 역사와 의의'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一民과 동아논객들' 기고



★문명호(본회 부회장) 회우 = 2009년 관훈저널 겨울호에 '一民 김상만과 동아 논객들'이란 글을 기고했다. 문회우는 이 글을 통해 고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의 비서부장 등을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김 회장의 인간적 모습

회우동정

(가나다순)

과 인물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東友會 명예 회장으로 추대



★박경석(전 국회의원) 회우 = 동아일보 전직 사우들 모임인 동우회 제2대 회장 임기 4년을 마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됨.

東友會 제1회 '몽도상' 수상



★성낙오(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장, 사진 위) ★이병대(전 KBS 해설위원, 사진 아래) 회우 = 지난 12월 15일 동아일보 전직 사우 모임 동우회 정기총회에서 동우회 창립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몽도상'을 수상. '몽도상'은 고이동수 초대 동우회장의 공을 기려 그의 장남이 회사한 기금으로 제정한 상이다.

헤럴드 미디어 사우회 송년모임



★송두빈(헤럴드미디어 사우회장) 회우 = 12월 7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회우인 최서영, 김경철, 윤익한 감사, 윤용호, 한동희 회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사우회 송년의 밤



★신우식(서울신문 사우회장) 회우 = 12월 3일 오후 6시 서울회 송년의 밤 행사를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동화(사장) 회우를 비롯해 김양섭, 김은구, 류철희,

신동식, 최서영 회우 등 본회 회원이 많이 참석했다.

일산 언론인 모임 회장 추대



★윤기병 회우 = 12월 11일 일산언론인모임(일언이금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국방선진화 추진위원장으로



★이상우 회우 = (전 한림대 총장) 회우 = 국방부로부터 지난 12월 18일 15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과학 그리고 삶' 주제 특강



★이광영(대한암협회 부회장) 회우 = 12월 5일 서울영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과학 그리고 삶'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부동산 주제 국제 세미나 개최



★이태교(서울부동산포럼 회장) 회우 = 11월 13일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09 World Real Estate Forum '선진부동산 시장 진출, 지금이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경향신문 사우회 송년모임



★이형균(경향사우회장) 회우 = 지난 12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2009년 경향사우회 송년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송년 모임에는 조용중, 최서영 등 본회 회우를 비롯해

130여명이 모여 우의를 다졌다.

東友會 특별공로상 수상



★임학수(전 동아일보 편집부국장·광고대행사 사장) 회우 = 작년 12월 15일 동아일보 전직 사우 모임인 동우회 정기총회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

한일관계 회고와 전망 강연회



★정구종(동서대일본연구센터소장) 회우 =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2331호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서울 사무소에서 '한일관계 회고와 전망 2009~2010'과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본 하토야마 정권'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울지국 사무실 이전



★한영도(미국CBS서울지국장) 회우 = 서울지국 사무실을 YTN 빌딩에서 중구 태평로 1가 21 조선일보사 C스퀘어 5층 505호로

이전했다.

전화 : 02-733-8294, 02-318-2711~5
FAX : 02-736-7542, 02-318-2717

제18대 바른말 보도상 시상



★한영섭(한국방송동우회 회장) 회우 = 1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방송동우회의 제 18회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에서 KBS 1TV 9시 뉴스 앵커 박영환 기자와 MBC 뉴스투데이 진행자 지영은 기자, SBS 뉴스퍼레이드 진행자 배재학 기자에게 바른말 보도상을 시상했다.

회비 납부

2009년도분

강승훈 강용식 김수웅 김용발 김정일
김준하 김철진 김 현 노재승 동문성
문 청 박영식 박응수 박응철 박진서
박화진 봉두완 서병주 성백진 송두빈
안평선 안홍렬 윤용호 이덕주 이민희
이상갑 이상우 이상호 이승남 이역순
이태영 임병학 임상학 장두원 정건일
정운중 정원복 조봉균 천상기 최중수
황순중

2010년도분

공대식 권영국 권혁만 김경태 김두근
김명구 김성배 김영일 김용술 김정일
김진기 김 화 동홍석 마권수 맹태균
박광춘 박명근 박영래 백환기 서옥식
송선무 오건환 오근영 유진수 유한준
윤병찬 윤석웅 이배국 이병천 이상근
이순기 이용권 이종기 이종완 이종윤
이 철 이학주 이형균 이흥우 임인흡
임한순 장창영 정두진 정창길 조덕일
조용중 조천용 주종환 최무룡 최상목
최신희 한강수 한영도 허경구 호영진
홍성혁 홍원기 황봉구

남치호 회우 별세

부산일보 경제부장 겸 서울지사장을 지낸 남치호 회우가 11월 24일 지병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산업경제신문사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을 거쳐 부산일보 경제부장 겸 서울지사장을 지냈고 전남 해남군 북일면에서 농촌농장을 경영해 왔다. 건강 때문에 농장경영을 힘겨워 한 고인은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꽃메마을 한라프로방스아파트로



이사해 병을 치료하다 끝내 숨졌다.

본회는 고인을 대한언론인장으로 모실 것을 유족에게 제의했으나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전화번호 변경

★류철희 회우 = 010-4707-5540
★이종윤 회우 = 010-5589-0657

회우 경조사

★박준구 회우 = 12월 20일 딸 결혼
★송호창 회우 = 12월 28일 모친상

무역은 희망입니다

**무역 1조불, 무역 7강을 선도하는
초일류 무역진흥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역과 함께 한 건국 60년-. 순탄한 길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무역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謹賀新年



아세아시멘트가 한결같이 사랑받는 이유

첨단생산설비를 통한 각 부분의 균일한 품질, 시공 후 품질유지에서 하자보수까지 완벽한 서비스
자동화 기계장비에 의한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절감, 분진이나 폐기발생 감소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

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아세아산업개발, 대련아세아

제지: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유진판지, 제일산업, 에이팩

금융: 우신개발금융

레저: 경주월드

교육: 학교법인문경학원



아세아시멘트

www.asiacement.co.kr

제품문의 02)527-6711~5 / 소비자 상담실 080-960-2000